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illegible]一一五九
朝鮮日報社

社說 混戰期의 世界

一

今日의 世界는 바로 混線混戰의 狀態에 處하야잇다 國內及 國際的의 思想戰線도 混線狀態며 列國間의 政治經濟對立도 多角的인 同時에 混戰的이아니라할수업다 大戰以後 國際的大勢는 蘇聯對資本主義列强의 兩大陣營의 對立과 및 列强國의 互相矛盾이 特色이엇다 비록 强國間에 彼此利害衝突이 잇섯다하나 蘇聯에 對한 憎惡와 맛利害는 大體로 一致하는바이엇다 그러하든것이 最近에 이르러서는 列强間 利害衝突이 極度로尖銳化하야지는同時에 蘇聯의平和外交政策이 奏効하야이에 兩者의 對立은三者四者의 陣營으로갈리게되엇다 그리하야 倫敦經濟會議席上에서는 金本位國對米國의 激烈한 對抗이 演出되어 자칫하면休會를不免할形勢에잇고 英國은 그 中間에 잇서서또한巧妙한재주를 부리고잇다 佛蘭西를盟主로한金本位國은 이버둥거리는동안에 米國의「달라」는 向方업시暴落을繼續하고잇스나 金本位國의陷落도目捷에迫하얏다고할것이요 그에따라서 兩者의抗爭은一層激化할것이다

二

이가티 倫敦에서의 空氣가 險惡한反面에 英蘇通商回復이 成立될뿐아니라 近二十年을두고 兩强이 蘇聯과 對蹠的立場을 固執하든 米國에 조차 蘇聯의承認을 急히할 機運이 濃厚하다 蘇聯對小協商, 波蘭等의不侵略條約의 成立도 反蘇戰爭의 陣營을 어느程度까지 分解하는作用을 가지고잇다고할것이다 赤色突擊隊의 産業突進은 英米의資本家에게 恐怖의象徵으로부터 一轉하야 商賈의對象으로 看做하게되엇고 그대신의 獨逸의 褐色恐怖가 國際戰爭挑發의 危險性을 內包한것으로 警戒의 標的이되고잇다 여긔도 混線의一現象이 가장 典型的으로表現되고잇는것이다

三

日本의 左翼思想界의 混亂狀은 逆睹키不能한바가잇다 佐野, 鍋山等 共産黨의巨頭等이 獄中에서 國際黨脫退의 宣言을 發表하엿다는것조차 우리의 귀를 疑心케하는 事實이엇거니와 다시 이「轉向」에合流한다는 黨員이 續出한다는說이며 學者的良心을 가젓스리라고생각되는 河上博士의 隱退聲明가튼것이 連發됨에 잇서서는 實로 意外의感이不無하다 轉向者의 假釋放이란 消息과連續하야 그들의行動을 批判한다면 이는너무도 犬儒派的解釋이라할것이요 一部白系露人의觀測에비처 이를 國際黨의指令에 依한 戰術이라고 稱함은너무도 非現實的이다 結局이것도 今日의 混戰的世界相의 一表現으로 日本思想界陣營의 再組織의 一過程으로 認定할수밧게업다

四

政局의 混線狀態 思想界의 動搖等은 今日의世界的現實의 反映인것은 勿論이다 어느意味로보든지 今日의 世界는 諸陣營의 急激한流動과 利害衝突의 多角化에 依하야 局面의 變化가 無常할것이 必然의 勢다 그뒤에는 發達의 極에達한 產業의 巨體의 老衰的 呻吟이잇고 機械文明과人類의理性的判斷力과의 最後的 싸홈의 呼吸이잇다 一見混沌한듯한데서 秩序를차즈며 一見無軌道인듯한데서 大勢를觀察하는것이 歷史的眼光일것이다

十日幹部會에서 金本位諸國脫退?

中央銀行代表者會議 열고 通貨急變動防止策決定

【聯合倫敦七日發】 分科委員會의 議事를 繼續할는지아니할는지를 決定할 十日의 經濟會議幹部會는 混亂이 豫想되니 卽 金本位諸國은 八日巴里에서 各中央銀行代表者의 會議를 行하고 金本位國通貨의 投機的變動阻止의 共同策을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그 實現에 압서서 벌서 金本位國側에서는 强固한 精神的結合이 잇스며 또다시 具體的對英米共同政策이 되면 十日의 幹部會가 分科委員會의 議事繼續을 決定하야도 議事는 事實上 困難하게 되여 特히 金融問題의 討議가 될가 아니될가가 疑問이다 一說에는 金本位諸國은 이것을 機會로 會議로부터 脫退치나 안는것인가 傳하고잇다

經濟會議失敗되면 英帝國會議召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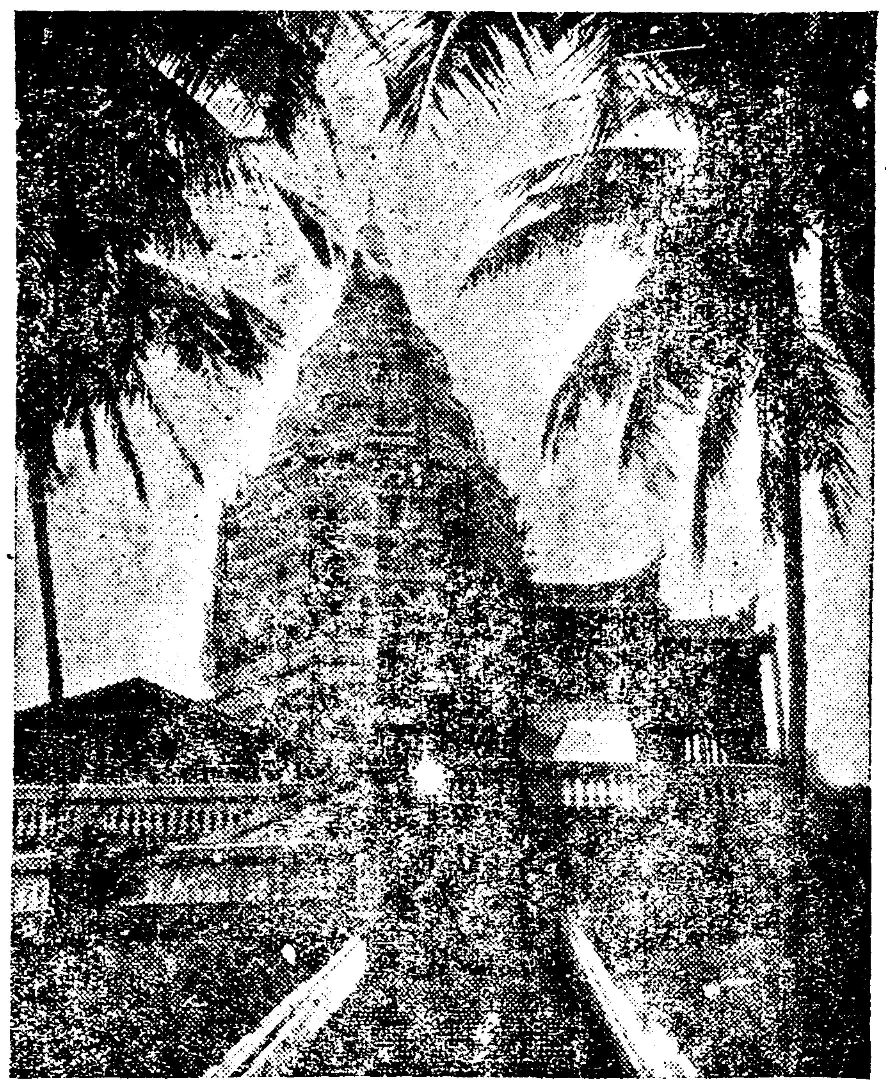
英國產業聯盟決議

【東京八日發電通】 在倫敦松山商務參事官으로부터 八日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大英帝國産業團體의 聯合會인 産業聯盟帝國委員會는 七日 左의 決議를 하얏다

萬若 世界經濟會議가 失敗하면 英帝國의 各自治領 및 各殖民地의 代表者等이 目下 倫敦에 參集한것을 好機로 하야 英帝國會議를 召集할것이다

新綱要起草 委員會任命

【倫敦七日發電通】 七日 開催된 經濟委員會 商業政策分科委員會에서 佛代表는 「伊太利及小協商國代表의 聲援下에 現狀에 잇서서는 關稅及輸入割當問題에 關하야 審議키 不可能하다」라는 理由로 急速同分科會를 散會하기를 提案한바 英代表 「랜시만」氏는 「可及的價値잇는 事業을 繼續하겟다」고 主張하고 「알젠틴」代表 「백」氏 米國委員 「맥클레이노드」氏 日本石井代表가 모다 此에 對한 賛成演說을 行한바 繼續을 主張하는 代表 十三, 解散을 主張하는 代表가 九의 分野를 보엿는데 獨逸委員 「크록만」氏는 反對者도 多數나 本分科委員會의 審議項目을 새로 考慮할 必要가잇다는旨를 指摘하엿슴으로 分科委員會는 審議項目의 新綱要를 起草하기爲하야 起草委員會를 任命하엿다 더욱 右項目은 輸入割當制度 關稅及其他의 輸入制限問題를 削除하고 最惠國條款問題에 限定되리라고 觀測된다



◇彼南의 極樂寺 (馬來에 在한 惟一한 佛寺)……(李順鐸氏發)

北寧線復舊

【聯合天津七日發】 事變以來 不通되엿든 北寧線은 日本援助에 依하야 最後까지 남어잇든 灤河鐵橋도 六日 修理가 完成하얏슴으로 唐山中繼로 唐山以南은 一日一個列車가 運轉되고잇는바 十日부터다시 二個列車를 增加하기로되엿슴으로 不遠 事變前의 狀態에 復舊할터이다.

北平狙擊事件 圓滿解決

【東京八日發電通】 陸軍省公表 ॥ 去六月二十一日의 中國將校의 北平駐屯日本軍狙擊事件은 北平駐屯步兵隊에서 何應欽에 對하야 抗議中이엇든바 數次의 折衝에 依하야 穩便한 解決案을 中國側에서 承認하고 五日圓滿解決을 보게되엿다

深井日本代表 審議繼續主張

【倫敦七日發電通】 七日午後의 通貨第一分科委員會討論時 深井代表는 如左히 陳述하야 日本의 態度를 表明하얏다

予는 何故로 本分科委員會가 吾等이 如何한 일을할수잇는가를 알기爲하야 그일을 繼續할것을 中止할것인가 其理由를 發見할수업다、日本代表部는 分科委員會는 모든 問題審議를 繼續할 것이라는 意見이다

對米爲替昂騰에 大藏當局依然傍觀

人爲的抑制는 不可라고

【東京八日發電通】 루스벨트 大統領의 通貨共同宣言拒否와 高物價政策固執에 依하야 弗價는 暴落의 一途를 지나 日本의 對米爲替도 三十弗을 突破치 안켓는가고 뵈이는바 이에 對하야 大藏當局은 左의 理由에 依하야 依然히 傍觀할수밧게 업다고 한다

一、對米爲替暴騰原因은 純全히 米國側에 잇고 日本으로서 小細工을 弄할 餘地가 업다

一、爲替昂騰抑壓 때문에 爲替平衡資金을 設置하여야 된다고 論하는 者잇스나 만 對外爲替의 三割에 不過하는 對米爲替의 安定만을 目標로 하고 爲하는 것은 잘못이다 現在 對米爲替는 騰落하지 안는다 이것을 無視하고 小康急的 施策을 講求하면 對外爲替全般의 安定을 紊亂케 할것이다

一、米國은이를 實現에 依한 高物價에 日本貿易은 爲替昂騰의 缺損을 補充으로 得

一、現在世界經濟會議其他에서 爲替安定에 依한 海外進出을 注目하는바이즈음에 對米爲替의 [illegible] 은政治的으로 意味잇지못하다

日印通商交涉 八月下旬開始

【八日發電通】 日印通商會見에 關한 印度側의 突破되여 印度政府는 아직 英政府로부터 正式通牒을 밧지 안엇스나 交涉은 八月下旬부터 開始될 豫定이라고 傳聞되는 一方 三十餘種의 各產業團體로부터 政府에 對하야 特別關稅保障要求의 請願이 만흠으로 事態急迫한 것이 事實로서 表現되면서잇다

私鐵運輸營業開始

黃海線東海州、海州間

朝鮮鐵道黃海線東海州、海州間 二粁三分은 一日부터 運輸營業을 開始하얏다

物價上騰政策 米大統領이固守

【華盛頓七日發電通】 米大統領은 어데까지든지 國際經濟會議는 最初의 푸로그람과 가치 物價의 上騰政策을 固守하는 方針이라고 確聞된다 「루즈벨트」氏는 「노만데비스」氏 其他의 顧問及國務長官代理 「필립스」 大藏次官 「하치슨」의 諸氏와 前記目的으로서 物價上騰政策의 實行方法及이에 備키爲한 前記議題의 研究協議를 行하얏는데 右研究事項의 目的達成方法은 엇지어도 六個가 잇슴을 認하고잇다 米政府當局은 經濟會議에 在한 最近의 發展에 크게 期待하고 더욱이 强硬한 政策闡明이 各國代表間에 好影響을 與한것을 것버하고잇다

時事漫畫 히틀러—君의 影響 벨사이유體制를 깨트리려다가 이술에 醉하신 軍神의 잠을 깨운다면? 英佛도문제려니와 東歐諸國은 벌서 豫防에 분분…… 【金 華】

宋子文歸國에 따라 日中問題再逆轉?

國府內歐美派對親日派抗爭

黃郛地位는 極히 不安定

【上海發電】 宋子文氏는 今回外遊에 依하야 米國에서 五千萬弗의 借款을 成立식히고 다시 英國에서도 借款交涉을 着着進行하며 佛蘭西 獨逸서도 軍事産業借款을 企圖하야 國民政府의 經濟的地盤을 堅固이하는 一方 軍事에 잇서서도 張學良을 通하야 舊東北軍의 實權을 掌握코저하는바 現在 華北實權 黃郛氏의 地位는 何應欽 于學忠의 二勢力의 均衡우에 잇는데 不過한것으로 만일 于忠軍과 舊東北軍이 宋子文氏에게 操縱되는날이면 黃郛氏의 勢力은 顚覆키쉬운것이다 特히 北中國에 잇서서 張學良의 部下로 抗日戰과는 無關係하고 六萬의 實力을 가지고 잇는 于學忠을 비롯하야 何柱國以下의 約十萬軍이 蟠居한바 이것은 張學良과 妥協한 宋子文氏의 歸國에 際하야 旗幟를 鮮明히하리라고 豫想되는바 北方 政務委員會는 여기에 對하야 엇더한 裁決을 取할는지 注目의 的이 되고잇스며 다시 宋子文은 韓復渠의 山東軍 蔡廷楷의 十九路軍과도 結托하엿으며 江蘇省中心으로 南北海岸에 압의 財政部直屬이라고하야 兵力一萬五千을 가진 自警團(米國式訓練을 밧고 武器給與는 中國第一이라고 한다)이 잇는바 이것은 福建으로부터 山東에 이르기까지의 海岸線에 勢力을 扶植하고 잇는바 그 勢力은 不可侮의 것 宋의 親米 抗日主義와가티 그의 七月末問題는 日中關係의 惡化로서 注目된다 卽 宋의 態度는 日中問題解決의 障碍가되리라고 본다 더구나 五千萬弗運用委員長으로는 宋派의 孔祥熙가 內定되엿다 勿論 南京政府有力者가 政府轉換을 考慮하고잇음이 事實이나 現在 外交部 財政部를 비롯하야 政府各部에 重要한地位는 거의 歐米派가 占領한反面에 親日派는 活氣업는 狀態이며 本來 南京政府에는 親日派가 적으며 歐米派巨頭宋子文에게 支持를밧는 羅文幹은 停戰協定調印에 關한 外交部長의 聲明發表를 不肯하기때문에 드듸여 汪兆銘의 名義로 說明함에 이르렀스며 遺番 「稅率改正은 關稅自主權에 基한것으로 日本의 抗議로 再改訂한것이아니다」라고 斷言한後에는 『新關稅率은 永久不變의것이아니고 實施하여서 조흔結果가 업스며 關稅自主權에 依하야 改訂한다』고 하야 二重性을 暴露하고잇다 結局現南京政府는 汪兆銘氏를 通하야 對日政策의 轉向을 暗示하엿으나 汪은 軍事上으로나 財政上에 極히 微力함으로 蔣介石의 代辯에 不過하나 蔣介石의 對日態度가 甚히 曖昧한것으로 宋子文氏의 態度만이 國民政府의 政策을 決定하는데 要因되는것이다

夕刊後의 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一八七〇 (五〇高)
鐘新 一一〇五〇 (三〇高)
日產 八七〇〇 (四〇高)
東新 二〇四〇〇 (八〇高)

馮態度不明으로 何實力解決

方振馮과相通

【北平發電】 馮玉祥의 抗日同盟軍에 對하야 北平當局이 代表를 派遣하야 數次交涉에 其態度가 鮮明치안코 抗日同盟軍取消에 關한 意見에 一致를 不得하엿다 馮玉祥은 宋哲元의 察哈爾政府主席就任後에 徐徐히 交涉하겟다한것으로 何應欽은 去三十日에 左의 最後案을 馮에게 送致하엿스나 또한 回答이 無함으로 다시 山西出身의 孔祥熙를 南京政府로부터 閻錫山에게 派遣하야 閻錫山으로 하여금 馮과 政府間에 妥協을 決策케하얏는데 條件은

一、抗日同盟軍을 取消後에 宋哲元을 察哈爾에 回任케한다

二、만일이것이 不可하면 馮自身이 率兵하고 北京附近에 親來하야 直接으로 交涉하라

【北平發電】 馮玉祥이 察哈爾主席을 宋哲元으로 任命하야 歸任한後에 抗日軍同盟을 取消하겟다는데 對하야 何應欽은 抗日軍同盟을 取消한後에야 宋을 歸任케하겟다는 最後案을 提示하엿스나 馮은 何等의 回答이 업고 反히 閻錫山과 某種의 密約이 有한바 北平軍事分會는 馮에 對한 和平解決의 態度를 漸次로 變更하야 武力解決로 傾하엿다는 說이 盛傳하다

宇垣總督 齋藤大佐招待

宇垣總督은 先日 凱旋한 間島派遣軍隊長 齋藤大佐以下 幹部六名을 十一日正午 倭城臺官邸에 招待하야 午餐會를 開하기로 하얏다

辭令

七月七日附로 遞信局內에는 左의 人事移動이 이엇다

釜山郵便局保險課長兼釜山貯金管理所長 遞信副事務官 田邊宗次 命京城郵便局臨時在勤
釜山郵便局長 遞信副事務官 松井十太郞 命釜山貯金管理所長兼務
釜山郵便局監督課長 遞信副事務官 高取鐵造 命釜山郵便局保險課長兼務

北鐵交涉은 絶望

蘇聯回訓이 到着되여도 前途打開希望은 薄

【聯合東京八日發】 北滿鐵道讓渡交涉은 지난 五日의 第四次會議에서 蘇聯側이 同鐵道의 所有權을 主張함과 同時에 二億五千萬金留의 價格을 要求한바 이에 對하야 滿洲國은 蘇聯의 所有權을 否認하고 價格도 五千萬圓으로 하자고 固執하야 辭讓치아니함으로 今後 蘇聯側서도 讓步하지안는 限 會議는 殆히 決裂의 危機에 當面하고잇으며 蘇聯代表도 그 權限範圍로서는 純全히 折衝할 餘地가 업고 滿洲國代表部도 또한 蘇聯側의 取態如何를 注目하고잇을 뿐이다 그러나 蘇聯代表部의 意向으로는 來週早急히 莫斯科政府에서의 回訓이 到着되리라고 함으로 讓渡交涉은 그後에 다시 再開하는 것밧게업다 바 蘇聯滿洲國間의 主張의 懸隔이 넘우甚하야 交涉의 前途는 容易히 樂觀할 狀態가 아니다

上海廣東間에 定期空輸를 開始

倫敦에도 近日開通

【東京八日發電通】 在香港 蘆野總領事代理로부터 外務省에 到着된 公電에 依하면 中國의 航空輸送에 從事하고잇는 太平洋亞米利加航空會社는 過般上海로부터 雲州 福州 廈門 汕頭를 經由하야 香港에의 飛行에 成功하엿슴으로 同飛行會社는 今後 一週二回의 上海廣東間 定期航空輸送을 開始키로되엿다 그리고 同會社는 近近 英國의 帝國航空會社와 共同하야 倫敦으로부터 海岸線을 傳하야 上海倫敦間에 定期航空路를 開始키로되엿다

輸入稅修正原則 國府法院發表

【上海八日發電通】 國民政府立法院은 現行輸入稅를 修正하기爲하야 協議中인데 八月修正原則에 對하야 非公式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一、主要奢侈品에 增稅하고 特히 卷煙草는 輸出稅를 增加하여 이것에 比例하야 煙草稅도 增加함

二、日用必需品은 減稅함

三、綿織物輸入稅增稅

四、轉行稅를 廢棄하고 內地海關을 撤廢하야 其稅收減은 輸入稅及其他를 가지고 補償함

떰핑防止稅 國府實施考究

【東京八日電通】 八日日高南京總領事로부터 外務省의 報告에 依하면 國民政府財政、實業兩部는 덤핑貨物審查委員會에 命하야 義者制定된 덤핑防止稅實施를 考究中인것이 判明되엿다 그리고 同審查委員會는 海關及政府內商業領事室에 實地調査를 命하얏는데 右덤핑稅賦課는 蘇聯의 國營貿易及日本더욱이 石炭, 세멘트類의 輸入品을 目標로한것이라한다

大連會議最終協定

【聯合天津八日發】 大連會議結果救國軍改編, 北寧、奉山兩鐵路의 最終協定은 近近塘沽서 正式調印이 되기로되엿다

世界一週通信

赤道直下에서

印度洋을 지나며 李順鐸 【五】

日印通商問題(續)

그러면 이結果로 日本에는 엇더한影響이밋치겟느냐 日本의綿製品은『덤핑』稅를 賦課밧게되고 이外에 一般的輸入稅의賦課를밧게되는 그래서『덤핑』稅가 假使 三割이라하고 一般稅가 假使 二割이라고하면 實로 十割內外의 課稅를밧게된다 아무리 日本品이 英國제에比하야 有利한點을가젓다고하더라도 如斯히 高率의 課稅를밧고는 到底히 輸出할수업슴으로 輸入禁止와 同樣의 壓迫을밧게될것이다 그러면 日本은 一億餘萬圓의 綿製品의 販路를 일케된다 게다가 萬一 大英濟「블럭」의 圈內에 如斯한 高率의稅를 日本綿製品에 課한다고하야 埃及 英領東西亞弗利加 南阿聯邦 濠洲加奈陀 海峽殖民地等에도 適用이되기로 한다면 日貨排斥과 日中關稅協定滿期 때문에 二重으로 中國市場을 일흔 日本의 綿業은 全滅을 免할수업슬것이다 그以外의 商業貿易도 大打擊을 밧을것은 定해논일이다 要컨대 日本經濟에 잇서서는 可謂 致命傷의 打擊이다 이 消息이 日本에 傳하자 日本의 官民間에서는 大驚失色하야 엇지할줄을 모르고 오즉 悲憤激怒할 뿐으로써 아즉도 何等의 對策을 確立하지 못한것 갓다

◇

그러면 日本은 어떠한 對策을 가지고 이 經濟難局을 打開하려고하겟느냐 이제 印度政府가 如斯한 課稅政策을 採用하게된 事情을 究明해보면 表面上 理由는 勿論 印度産業의 保護지만은 이외에 더 精巧한 理由로는 「랑가쉬어」의 紡績業者의 運動이 잇다 우리가 周知하는바와가티 英國은 일즉이 綿業國으로서 世界에 冠햇든데 近來에는 技術의 未改良, 經營販賣方法의 陳套, 勞働問題의 激化 때문에 漸漸 外國과의 競爭力을 失하야 近年에 이르러서는 特惠待遇를 가지고도 비록 自領內에서도 外國品 特히 日本品과 競爭을 하지못하게되엿다 따라서 이대로 繼續이 되면 英國綿業은 衰亡을 하야 失業者는 激增하고 不景氣는 深刻化하게된다 둘재는 「오타와」會議의 結果를 實行하야 大英『블럭』經濟確立의 第一步로 몬저 印度市場을 獲得하려고하는것이겟고 셋재는 日本의 國際聯盟脫退일것이다

◇

따라서 日本은 이에 對한 報復策으로 첫재는 印棉不買 大英『블럭』經濟圈內에서 羊毛, 小麥等 主要商品不買等이오 둘재는 他에 販路를 獲得할것이오 셋재는 對中外交를 傳換함으로서 中國에서의 結局 恢復及增進策을 講究요 넷재는 日本『블럭』經濟의 完成일것이다 勿論 此等 對策은 쉬운일이 아니지마는 그中對英報復策은 相當한 効果를 들수가잇슬것이다 그리기때문에 이場合에 英國은 民間代表者로하여금 日英經濟協議委員會를 組織케하야 日英經濟關係의 全般的問題를 商議해서 이結果를 보아가지고 日印新通商條約을 締結하려고하는 重大한 提議를 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의 感情을 緩和해보고저하는 한 老猾한 手段에서 나온것이라고 밧게 볼수업는것은 商議의 結果가 兩政府에 何等의 口實을주는것이 못되며 따라서 何等의 拘束力이 업는것이다 아마 今般世界經濟會議席上의 日英間의 問題는 複雜多端하야 免할수업슬것이다

◇

最後에 이 條約破棄가 印度國民의 見地에서 보면 엇더하냐 勿論 印度國民은 이에 對하야 反對의 態度를 가질것이다 卽 印度의 綿業은 過去 二十年來에 長足의 進步를 하야 卽 (一九三一年) 印度의 綿布生産高는 實로 二十九億九千萬平方碼이다 그리하야 印度全需要額 四十億平方碼의 約七割五分을 供給하고 細番手供給만 日英兩國에 仰하는 中日本에서의 年輸入은 九百萬碼로부터 最近(三十二年) 五億五千二百萬碼로 激增하고 英國에서의 年輸入은 三十一億四百萬碼로부터 五億五千一百萬碼로 激增하엿다 要컨대 印度市場에서의 日英競爭은 細番手約十一億平方碼의 爭奪戰이다

◇

印度의 見地로보면 이 部分은 아즉 技術上으로보아서도 生産키어려운 事情이 잇을뿐아니라 그 生産原棉을 輸出한다는 見地에서도 그만한分量을은 交換的으로 輸入한다는 것이 어느便으로는 有利한 것이다 그런데 日英兩國品을 比較하면 高價인 英國品을 消費하는것보다는 低廉한 日本品을 消費하는것이 有利한일일것이다 그뿐아니라 原棉을 英國에만 輸出하는것보다는 日本에도 輸出하는것이 原棉의 價格維持 乃至 農業保護上 必要한일일것은 多言을 不要한다 그러기때문에 印度紡績聯合會에서는 反對의 態度를 取한것이다 그러나 印度政府가 英國品에 對하야 前보다 더 低廉한 價格으로 綿製品을 需要할수가잇스며 次次 此部分의 生産에도 競爭能力을 養成할수잇슴으로 印度綿業의 中心인 『아—메다빠드』地方의 紡績聯合會는 英印兩當局에 對하야 『萬一 印度政府가 印度紡績品及 印度國에 對하야 正義를 行할 意思가 잇스면 政府는 英國品에 對하야 其他諸國品과 同樣의 輸入稅를 課하야 適當한 保護政策을 行함으로써 印度紡績의 自由와 自然한 發達을 助長할것이라』는 主張을 한것인데 이 態度는 勿論 印度의 國民運動으로 支持하는것이라 할으로 英國이 日本品을 驅逐하고 自國品의 價格을 低下하야 印度民衆으로 하여금 前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이를 需要하게 하며 印度綿業의 抗爭能力을 助長하며 原棉의 價格維持를 保障한다고하면 英國은 印度에 正義를 行하는것이며 印度國民의 歡迎한바가 되는것이다 印度産業을 保護하는것이겟지만은 今番의 條約破棄가 理由의 當然한 일이겟지만은 이것은 過去의 英國의 印度政策의 歷史로 미루어보아서 到底히 바랄수업는일이다 따라서 全印度國民은 反對의 意思를 가질것이다

日曜夕刊休刊

前例에 依하야 七月九日은 日曜日임으로 夕刊을 發行치 아니합니다

朝鮮日報社

羅子溝避難民中 一千六百名四散
土兵의襲擊으로三十名死傷
行方不明도五十名

【朝鮮軍司令部發表】 회녕(會寧)에서간라자구(羅子溝) 수비대에서 환송하는화물을 호송하기위하야 륙월이십륙일 백초구(百草溝)를출발한석정조장(石井曹長)이하이십칠명은 이십구일라자구에 도착하고 그이튼날새벽세시에 하차(荷車)백대를가지고 다시백초구를향하야 출발하엿는데 그일행중에는 라자구에서 피란민 사천여명과피란민의우마차(牛馬車)오백여대가뒤를달려 칠월일일에국자가(局子街)에도착한후 륙일오전여섯시삼십분에회녕(會寧)에돌아왓다 이호송대는 호송중수차반군(反軍)과싸왓는데 그교전상태를보면 륙월삼십일새벽에는 태평구(太平溝)부근에서약사천명의반군과교전하고 그날 오후에는 화피뎐자(樺皮甸子)동쪽에서약사백명의구국군(救國軍)과교전하고 칠월일일에는 장가뎜(張家店)부근에서약 삼백명의구국군과 교전하고 이일에는 새벽에 로령(老嶺)부근에서 사오십명의 반군과교전하고 사일오후에는 화가뎜(火家店) 서쪽에 약칠십명 되는 반군과 교전하얏는데 이상수차의 싸홈으로 말미암아 반군이버린 시체가 일백 일본군이명 부상 하차십사대 행방불명 피란민사상삼십명 피란인중 행방불명이된자오십명 명으로 죽은자사십명이며 그밧게우마차백대가행방불명이 되엿는데 백초구에 도착하야 조사한결과 사천명 피란한사람중에서일천륙백명은 사방으로 흐터지고 또는반군에게 사로잡히어 행방이 불명 된것이판명되여잇다

間島集團農場에 八百餘戶를收容
軍營附近二十里地域에設施
土兵의來襲도적다고

예산편성고를 압두고 협의하기위하야 입경중인 간도(間島)주재외사과 사무관미근오랑(美根五郞) 씨는 피난민의 처치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간도(間島)의 피난민을 구제하기위하야 군영(軍營)으로부터이십리이내의지뎜에집단농장(集團農場)십일개소를새로설치하고 일천이백호를 수용할 예정인데 벌서팔백팔십호 오천백삼십오인을 수용하엿다 경비에도 일만군경(日滿軍警)이 협력하야 이를담당하고잇는 외에자위단(自衛團) 등도 조직시키고 잇오나 금년에드러서서 벌서 이십여회나 토병(土兵)이 습격하여왓다 그러나 이지을조목이무성하야 래년가트면 토병의횡행이 상당히만을 시긔인데도 작년에비교하면 벽지로부터의 피난민이 훨신줄은점으로보아 횡행도비교적 줄은것으로보인다간도(間島)는 철도도개통되고자동차교통도 열리어이후의발전이 긔대된다

◇……팔일밤영남수해소사회장광경(파고다공원에서)

人妻誘拐犯被逮

원적을시외신공덕리(新孔德里)삼번지 십팔호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조원룡(趙元龍)은지난사월경에 지금시내필운동(弼雲洞)이백사십륙번지박승환(朴承煥)방에잇는 조재룡(趙在龍)이가 고향인황해도금천군 서북면연봉리 (黃海道金川郡西北面延峯里)에 잇슬째조원룡은그곳에 두류(逗留)하다가 그근방인평산군금암면룡촌리 (平山郡金岩面龍村里)에잇는리길녀(李吉女)의처 자식의소개로친하게되여 감언으로 꾀여가지고 경성에와서부부가되여지나든것을본부가탐지하고 고소하야방금동산서에서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洛東農組事件控訴

【晉州】 지난륙월삼십일언도를바든 락동농조거창지부(洛東江農組居昌支部) 사건의피고륙인은일제히 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하엿다

一時順化햇든 金寬佑等逸走
다시○○운동에몰두중

【吉林】 만주사변이일어나기전까지 길림에주재하야 조선○○운동을위하야 정의부 집행위원(正義府執行委員)의한사람으로써권책임을지고활동하여 오든 김관우(金寬佑)와 장문파(張文波)량인은사변이일자 즉시로피신하야 화전(樺甸)방면에 숨어잇다가 사세가불리할것을 알고 금년사월에다시길림령사관에자진하야귀화를칭하엿든바당국으로서는 귀화된자로과거를 용서하엿든바지금으로부터두주일전에 돌연히간곳이업시 종적을감추엇슴으로 령사관경찰서 에서는 간곳을극력수사하든중 모처의정보에의하면 그들의 귀화는 일종의수단으로 일시적 방편이엿고 그동안길림에남어잇는 가족들의생활안정을식혀노흔후준비를갓추어가지고 리청천(李靑天)을차저갓다고한다 김관우는 봉천성 신빈현(奉天省新賓縣)에 근거를둔 량서봉(梁瑞鳳) 일파와 련락을 취하야 조선○○운동을 적극적으로하야 모 비밀결사를 조직한후 간부의일인으로써 모중대사명을 가지고 북평(北平)으로갓다 목적을일우지못하고 이태리조계(伊太利租界)에서 일본관헌에게체포되여 신의주감옥에서 삼년간복역을하일도 잇섯다는바 교묘하게도 엄중한국경경비선을빼파하고다시 만주에건너와서 여전히 ○○운동에 열중하여 오다가 일본세력이 길림에까지 밀리여들어오매 부득이귀화형식을 취하엿다가 이번에 또장문파와함께 이건무대로도라갓다고한다

京城驛에 停車場浴場
설치를계획한다

【京通】 일본 조선 만주의려행수십도시로서 최근나날이 발권하고잇는 국제적정거장인 경성역에『스테이순욕장(浴場)』의설치가 각방면으로부터 요망되고잇슴으로 당국에서도 목하선진도시의『스테이순』욕장의재료를 수집하고잇는데 이계획은경성과가티각철도의련락지뎜으로승강객이만흔역(驛)에는업지못할 설비인데 현재의려객은동환시간혹은 잠간하차하는 손님을위하야 연구비에욕장회장일부개실등의가이한보비를하야려행에 피곤한 손님을 위안하는 一석뷔스를하는일편 현재의련방업과가치 일반공중용으로 리용식혀 일장료를 바들터이니데 명년도신규사업계획으로할모양이다실현되는에는 명실이 가튼내용이충실한정거장이될것이다

定平赤色農組 送局은遼遠
◇金弘彬外三十人

【新上】 루보한바 정평적색농민조합재건(定平赤色農民組合再建)혐의로 지난삼월 십구일에 일제검거를 당하야아직도 정평경찰서 (定平署) 에류치되여취조를밧고잇는 사람은김홍빈(金弘彬) 이십구명이나된다고한다 정평서에서는 주혁(中澤) 고등계주임이 취조의 책임을지고엄밀한취조을 진행하고 잇는데속히취조를 맛친다하여도 압흐로사개월은 걸이리라고한다 동서에류치되여 취조를밧고잇는사람은김홍빈을 비롯하야 아래와갓다

金弘彬 金澤明 金宗植 李準承 金善相 金培植 池昌實 朴東勳 金永弼 金鉉林 金弘旭 金澤林 金澤守 金甲龍 徐文憲 金秋建 金進璜 徐仁憲 金淳建 金麗觀 韓靑勳 鄭鉉浩 尹光善 徐俞憲 裵形奎 孔錫正外數名

南面에서도 女子一名溺死

【南面】 경남창원군남면남지리(昌原郡南面南支里)박순명(朴順命)의처김성녀(金姓女)(四三)는 지난달이십구일 오후네시쯤되여 폭풍우중에 남편 (南川)내물을 건느다가실족하야그만참혹하게 빠저죽엇다는바 긔김성녀는 이십팔일대산면(大山面)에잇는 자긔딸집에소풍어드려갓다가 소도엇지못하고 도라오든길에 그리되엇이라 한다 이를발견한 가족들은 크게놀내여 뛰여갓스나 시체는발서어디로흘러갓는지 차저보지도못하고 다만 그다음날인 삼십일밤사엿스나 그다음날인 삼십일밤에찻지못하엿다가 지난초일일에야 웅남면경리부근에서 들에나왓든농부가발견하고곡시그가족에게통지하야차저갓다고한다

本社撮影 大水災實寫第二報
銀幕에點綴된慘痕
萬餘觀衆의唏嘆
昨夜社稷塔洞兩公園에열린

본사특파영화반(特派映畵班)의손에촬영된 령남대수재실사(嶺南大水災實寫)케이보는 팔일밤에시내 두곳에서 공개하게되엿다 아홉시부터열시까지는 사직공원(社稷公園)광장에서열시부터열한시까지는 종로빠고다공원에서 차례로공개하여 정각전부터 두곳을향하야 몰려드는관중은 불일듯하야 두곳이모다오륙천명식의 관중이모히게 되여장소의 좁음을유감스럽게 하엿다 특히금번실사는 케일보에나타낫든 놀날만한 증수상황만에아니하고 한거름더나가 수만흔리재민들의 참아당치못할 곤난를밧는 애닯는정황과 탁류와위험을무릅쓰고 뱃길찻길 합것업시불면불휴로 활동하는 본사구호반의 활동광경과 홍수가나든당시에는 교통이두절되여 감히발길을 드려노치못하든지선(支線)철도의 연선까지 남김 업시 촬영되엿슴으로 화면이 밧구일째마다 참담한실경이 눈압헤방불할째마다 만여관중의 애닯는

『납푸』文士等 最高六年言渡
再建日共黨『심파』

【東京八日發電通】 전중청현(田中淸玄)일파의 재건 공산당(再建共産黨)의『심파』로서검거된 남녀일동의치안유지법위반사건은 조재판장이 심리중이든바팔일오전 열한시에 다음과가튼판결언도를바덧다

懲役六年 曾木 勝彥
同 三年 大村榮之助
同 二年 立野 信之
同 一年 林 房雄
同 二年 藤森 成吉

어머니를차저서 徒步跋涉一千里!
氣盡脉盡하야畢竟警察에哀訴

팔일 오후한시경 에부내본정서(本町署)에는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말을 모르는 김은도 (金隱藏)(三三)란청년이 나타나서자긔는 여섯살때에엇던곡마단(曲馬團)에유인되야 동경에건너갓섯든것인데 그친척의유모를 몰라에를태우고 잇든중 조도권서(早稻田署)에부탁하야평양본정(平壤本町)사십번지 김정옥(金貞玉)이가 자긔의어머니인것이 판명되야 려비십륙원을 가지고동경을 떠낫스나 중도에서려비가 떠러저서 부산(釜山)에서서보로거려왓스니 려비를보조하야 달라고 애원함으로본정서에서는 려비오원을 주어팔일밤 아홉시십분차로 평양에보내기로하엿나

『죽엄』으로清算한 倫落女의多角愛
『愛』와物質의十字路에彷徨든
妙齡美人이飮毒自殺

『뵈리에테』秘話一節

상당히 교양바든젊은녀자로 미묘와 허영이화근이되여 련애권선에 레도업시 출동하다가종말은속이검고 두겹마음을가진 남자들에게 짓밟힐대로 짓밟힌후세상을 저주하면서 자살로써한만흔세상을 청산한 젊은녀성이잇다 그는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일백 오십이번지에 주소를둔 남달리아릿따운 자태을가진김종숙(金鍾淑)(二二)이란녀자로 일즉이 천모를여의고 아버지는 외탈로 아버님의남기고간 유산을얼마가지고 고향인 안성(安城)서보통학교를 마치고서울로 올라와서 숙명녀학교를 역시우수한 성적으로마추게 되여슬째에 그의아릿따운자태에 홀여서텀베는 평양부호의아들김모(金某)의수단에넘어 원치안는첩이란이름을 어더가지고 평양으로 출가를하엿다 그러나 본처가잇는곳이니만치 가정에 풍파가일기시작하야 마츰내 그곳을뛰여나왓다 그후부터 그는세상에허무한것을알고 자포자긔의 유락의생활을밟엇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연히 성대의학부○○내과(城大醫學部○○內科)에 의사로 잇는 오모(吳某)와알게되엿스나 그역시 본처가잇섯슴으로 그는몃자례나 문제를 삼엇스나 남자는 리혼을하겟다고하야 그럭저럭 속여나오는판에 정조만유린당하고 말엇다 그러나 생활이 문제가되니만치 오의사의 주머니를 엿보지안을수가업서그러케재미업는세상이나마 그대로 견듸고잇든판에서 내송모(宋某)라는사람과또사랑을주고밧게되여 송(宋)은 처도 업고돈도업서청은김허가나압날 생활이캄캄하여 오도버리지못하고 송도버리지못하야 번민하든 추작칠일오정에 자긔가 하숙하고잇든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일백 오십이번지에서 다량의『칼모친』을먹고고민하는것을집안사람이보고 곳의전병원에 입원식혀응급수당을하엿스나마츰내오후여섯시경에 한많은 세상을떠낫다한다

갑작은 알지못하는사이에 가간이각식으로 변하야 폭발되는이외에는 물론천도이 정숙한중에 무사히페회하엿다

安溪住民大困難
雹災뭇헤水災
사회단체에서구제책강구

【安溪】 경북 의성군서부(慶北義城郡西部)일대에는 지난륙월초에 참혹한박재로 일만여의주민이 사선에서 바황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설상가상으로 지난이십륙일부터 련일나리는 장마비에 락동강(洛東江)과 위강(渭江)이창일되여 륙칠일간 침수로 연안일대에 일반농작물 피해가 막대할뿐더러 더욱이 양곡에든 양관이 이백여정보가량이나 전멸상태이며 박재에남은 면섯의모맥(牟麥)조차를에서권부식하고말엇는데 재해의우심한곳은 안계,단북,단밀,다인,비안(安溪,丹北,丹密,多仁,比安)등지라는바 각면구제회에서는 사회단체와련합하야 리재민구출에몰두중이라한다

崔曙海追悼
구일시천교당에서

구일오후 여덟시부터 시내견지동(堅志洞)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 소설가고서해최학송(故曙海崔鶴松)군의일주년추도식(追悼式)을거행한다는바 당일은그의친지외문사제씨가만히참려할터이라한다

◇价川泉東間 廣軌車開通◇

만포본선(滿浦本線)중개량공사중이든 원개천철도레도(价川鐵道)의 천동개천간 (泉洞价川間)광궤개축공사(廣軌改築工事)는이즈음준공되여 십오일부터 서선로도 일반운수영업을개시하기로되엿다

二割三分程度의 家屋稅滯納率

경성부에서는 가옥세(家屋稅) 제일기분 처리한것이 구천구백 이십일건에 대하야 륙월삼십오일부로 독촉장을냇섯는데 독촉장의기일인 륙월삼십일일까지 납입한건수는 삼천여건에달하고 기일까지 납입못한건은 륙천륙백십삼건에달하엿다 이것을 과세(課稅) 건수 이만구천사십륙건에 비례를보면 이십삼『파ー센트』의 체납률을보이고잇다

共黨심파 大塚教授公判

【聯合東京八日發】 유명한공산당(共産黨)『심파』로 지난간일월십일 검거된 동경상대교수 대총금지조(東京商大敎授大塚金之助)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케일회공판은 드듸여 오는십삼일 오전구시부터 동경(東京)지방재판소에서 조(潮)재판장 담임으로 개정하게되엿다

慶全南部線開通

남조선대수해로지난삼십일부터불통중이든 경전남부선 (慶全南部線)의최대피해지인 락동강유림정간(洛東江楡林亭間)은 오칠일후 다섯시부터 복구되여 개통되엿다

煙草專賣犯則者 一年에四萬五千
無許可耕作者가最多

소화칠년도의 연초전매취체상황은 발견된 전매범령위반자가사만사천칠백칠인인데 그중 경한범측(犯則)으로 현장훈계(現場訓戒)에 쯔친것이 일만륙천이백륙십오인 검거된것이 이만팔천사백사십이인인바 그중 부정연초소지,양도,양수범 (不正煙草所持,讓渡,讓受犯)이 일만오천이백사십삼인이고 무허가경작범(無許可耕作犯)이 팔천백륙십칠인이며 가장만코 밀수이입범(密輸移入犯)이이천백팔십사인으로되여잇다

晉州學生事件 來十四日開廷

【晉州】 진주학생사건의공판이 지난륙월 삼십일이엿는데 칠월칠일로 연긔되엿는바 다시오는십사일로연긔 시켯다한다

女子를誘引하야 金叉빼앗고潛跡
隱匿中에被檢

지난륙일시내황금정(黃金町)칠정목에서 목공을하는리영구(李英求)(二三)는 시내량원동 (梁園洞)십오번지 최하선 (崔夏仙)(一九)이란녀자를 꾀어가지고 종로륙정목삼십오번지 장안려관(長安旅館)으로다리고가서 감언리설로 달래여 최하선의 쏫고잇는 금비녀를 쌔어가지고 녀자는 버어버린채로 어데로자최를감추어 버리고 말엇다동대문서 사범계에서는 범인을사방으로 수사중이든바 칠일밤에범인이 련지동(蓮池洞)방면에 숨어잇다는 정보를듯고 형사대가 출동하야 범인이련지동 리용중(李容重)의집에 숨어잇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체포하야 목하동대문서에서 엄중 취조중이라한다

老人屍漂着

팔일오전여섯시반경에 시내 원정(元町)사닥

嶺南水害救濟金取消

八日朝刊發表中『仁川龍里張光淳五圓,朝鮮日報社仁川支局員一同[illegible]』은에取消

拳鬪選手權大會 第二日戰績

Y·M·C·A·主催 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第二日은 昨夜午後八時靑年會舘後庭에서豫定대로擧行하엿는바그戰績은다음과갓다

푸라이級 (第二回戰)
【勝】 【敗】
朴春緖(朝拳) 棄 金仁基(水商)
▲審判 金振秀
朴炳杰(培材)判定李福成(普光)
▲審判 李惠澤
金德仁(京拳)判定盧炳烈(朝拳)
▲審判 成義慶
金啓昌(朝拳) tko李春甲(無所)
▲審判 金振秀

밴담級 (第二回戰)
【勝】 【敗】
金彰允(靑拳) 棄 金喆鼎(靑拳)
盧甲成(水商)判定李鄕福(東商)
▲審判 李惠澤
金忠國(靑拳)判定崔玉奎(朝拳)
▲審判 成義慶
文基善(朝拳) tko李永基(公中)
▲審判 金振秀

페더級 (第二回戰)
【勝】 【敗】
李弘圭(中東) 棄 朴龍辰(朝拳)
▲審判 李惠澤
朴宗合(朝拳)判定張榮健(協成)
▲審判 成義慶
鄭炯根(京拳)判定吳廷植(朝拳)
▲審判 金振秀
劉鳳九(靑學)判定金南善(漢學)
▲審判 李惠澤

라이트級 (準決勝戰)
【勝】 【敗】
姜泰珍(靑拳) tko張錫興(朝拳)
▲審判 成義慶
金恩際(朝拳) tko朴先奉(京工)
(2分28秒)
▲審判 金振秀

푸라이級 (準決勝)
【勝】 【敗】
朴春緖(朝拳)TKO朴炳杰(培材)
(2回)
▲審判 李惠澤
金裕昌(京拳)判定金德仁(京拳)
▲審判 成義慶

全京城6A-2大田

全京城對大田鐵道 野球戰은昨八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되엿는바9A-2로全京城이快勝하엿다

釜鐵16A-6平實

釜山鐵道對平壤實業戰은, 八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開始되엿는데局12A-6 으로釜山鐵道大勝하엿다

早大庭球部來京

早稻田大學庭球部 選手一行은滿洲遠征의 프로그람을맛치고 今九日午後 九時二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十日鐵道軍과 試合을行할豫定

◇今日의運動◇

▲全京城對釜山鐵道野球決勝戰 午後四時부터京城球場서擧行
▲庭球中央豫選 午前九時半부터京城運動場庭球코ー트에서擧行

七月七日부터 超雄篇週間 特別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RKO社特作全發聲 사랑은차저온다 八卷
빗드러銃 ?卷
米國擊滅艦隊 十卷
太平洋의危機! 出動하는擊滅艦
高級發聲 朝鮮劇場

오ー케ー레코ー드 新譜 양산도 洋樂伴奏 唱

肺病專門療養院 黃海道海州
入院案內書要二錢切手 療養指針書三錢切手 十一月頃發行

산파부인과 許信醫院

림질근치에반다시 처림회양환으로 濟衆院 京城禮智洞二五

모히中毒 專門 大田順天醫院 入院案內進呈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朝鮮京城
營業案內贈呈

診察時間 午前自八時至十時 午後自三時至五時 (土曜午前中、日曜休業)
神經病精神病 內科的病一般
京城府觀水洞一六三 (파고다公園正門越便 舊前金浴球內科醫院跡)
內科 神經科 漢城醫院 全 鐸遠 (電話光一四七七番)

登錄商標 登錄商標
대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三三八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 (電話光化門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앞便) 電話本局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盛夏第二彈 中央이放つ東西名畫
米國擊滅艦隊 全拾卷
肉彈三勇士 全壹卷
銀嶺富士に甦る 全拾二卷
フオックス ニュース 全貳卷
中央

日曜特輯

揚子江의大汎濫

一九三一年水難의回想

洪陽明

中國의社會的悲劇

洛東江流域一帶의水難이갓득이나 生活苦에呻吟하고잇는慘憺한數十萬農民의生活을 破滅식히고 적지안은生命을빼서가서吾人으로하여금 自然의惡戲를呪咀하지안을수업도록하는이즈음冬難한

隣邦中國

에잇서서도이나라의大動脈이라고할 揚子江 上流地方의暴雨때문에連日水位를놉혀 곳곳에堤防이破壞되면서汎濫이始作되여잇고 九江은이미濁流에휩슬니워浸水가市街의半以上에達하엿스며 漢口는 그水位가이미四十五呎에達하얏다는놀나운消息을外電의中國通信은吾人에게 告한다 이에따러 반다시吾人에게聯想되는것은再昨年七八月에 亘한이長江의未曾有한 大汎濫이니再昨年의揚子江大汎濫은 八十年來의列强의對中進出과爛熟하야 崩壞되여가는中國半封建社會가나흔 一個의巨大한社會的悲劇으로서 그影響은中國의政治經濟文化等의各領域에 致命的創痕을남겨오는낫外지그로因한 中國

農業經濟

의破壞된一大間隙은最近年來의逼迫한中國의國家的 危機와함께 國民政府로하여금 全幅的으로帝國主義에 依賴치안코는姑息的이나마그統治體制를 維持하여나갈수업도록만든 要因의 하나로서重大한意義를賦與한것이니宋子文의渡米로써 結果된國民政府의米棉麥借款의締結은 그表現의하나로써注目되는것이다

이러한社會的振幅을가진 自然의惡戲는 自然의慘禍가演出된 當該地域의政治狀態와人民의利益을中心으로하야 組織化하고 統一化되여잇지못한데일수록 그影響은더욱크다 이點에잇서서 最惡한條件下에잇는地域은中國이다 이最惡한地域에서 最大의犧牲을밧는數千萬의窮民이

阿鼻叫喚

의今世活地獄에直面햇든 再昨年의大洪水가또다시 中國에發生할것과가튼狀態를 멀니이半島의한구석에서 像想할때 再昨年의中國六十年來의 그무서운水難을現地揚子江流域에서겪든 當時의光景와恐怖 驚異업시는聯想할수업다 以下若干當時의記憶을적어보기로하자!

夏禹氏時代에 大洪水懷山襄陵

洪己走

中國文化에 저저잇는朝鮮인만큼 中國歷史에對한知識으로말하면 兒童走卒에게서도 晉及되야잇는터다 그中에도 夏禹時代의大洪水나 湯時代의大旱魃로말하면 모르는사람이거의업슬것이다 洪水이약이가난판에 이와가치만히아는洪水를 쎄다는것도 勿論쳡쳡한일이지만 이와가치만히아는洪水에對하야 새로운消息과珍奇한發見을 엇지못한나음 쓰러텀빈다는것도 싱거운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한번 놀래어보자! 夏禹가어느種族이엇느냐고무르면 여러분은 勿論 漢族이지어느種族이야하고 얼는對答하겟지만 夏禹는 실상漢族이아니라고判明되얏다 여러분으로부터 다시夏禹가果然어느種族이엇느냐고 뭇게된다면 나는 朝鮮人과同族인 흉子쓰族의 一族이라고 곳對答할것이다 이것은 決코在來朝鮮歷史家式으로 朝鮮人의價值를올리기爲한 牽强附會의抑說이아니다 顧頡剛의古史辨에는거긔關한考據와引證이 充分히실리어잇슬뿐이아니라 中國古代社會史의著者인 郭沫若도거긔對해同感을表한다 이만하면中國歷史에對한나의知識이 九年大水夏禹氏 七年가믈탕임검을외우든 장돌뱅이보담은 낫지안흔가?

大槪 漢族은 일즉이黃河流域으로進出해 農業經濟에着手하얏스나 年年黃河가汎濫되는것과또는그를딸어 灌漑하는것이그들의社會에잇서 重大問題다 中國의上古文化가 希臘이나印度에比하야 實際性을包含해잇스니 中國어떤哲學이든지 政治國體로써 그體系의中心을이두는것은 그조건에로 이러한物質的根據아래 그러한文化가構成된것이다

堯舜의時代로말하면 아주原始社會로서 堯舜은다함께 그族社會로서 社會의代表者로나선 族長인데堯時代에 배마침 未曾有의大洪水가 나리엇다 夏禹의大洪水란 곳 堯時代의大洪水로 그의洪水라고 떠들게된것이다大禹가治水를行햇기때문 夏禹時代의洪水아때 堯舜은無能한族長으로써 지나왓고흉子쓰族中 으로부터 夏禹가나와 傲山動族의 淘淘한물결을 치를니친結果 夏라는 王國이서서君王政治가 始作되는同時흉子쓰族의漢族支配政治가展開된다

아마夏禹의一族은 本來堯舜이統率한漢族의 한支配部落이엇든것갓다 夏禹의아버지鯀이舜의臣下로 治水를마탓다가成績不良이라 罰을밧고 夏禹가그아버지를代身해 治水하러나섯다는 傳說로 볼때 斟的할쓰잇는일이다 그러나夏禹의治水가功을이룸을딸아 夏禹一族의勢力이올라갓슬것으로夏禹一族은드되어被支配種族으로부터支配種族으로一躍地位向上을하얏다九疑山上舜의무덤을가지고 舜의暗殺을 推測하는사람도잇는反面 三皇五帝의史蹟을 弑君逆上으로解釋한다고 大癡失色하는 雅冠情帶의족도잇는데 그推測이어느程度外지 事實이냐는且置코 全然不可能한推測은아니다 그러나 그것을가지고日可日否를 따질必要는 조금도업다 禹를舜을暗殺하얏든안햇든 茫茫한九州의天下는고만禹跡의漏踏아래 禹域으로變하얏다 夏禹王國을에殷殷過도夏禹나마찬가지로 漢族이아니요 東族의一族이라고한다 漢族이堯舜以後天下를 回復하기는 周로부터시작이다

작구大洪水와關係업는方面으로흘려未安하다 다시本題로돌아가지안흐면안되겟다 夏禹는어떠케治水를 하얏는가? 禹가治水로 在外十三年에 집문을지나면서 안들리엇다는것은有名한이약이어니 十三年동안그는 무엇을하얏는가? 推測를 山西省의 壺口山으로부터넘어다가 九河를맨들고 濟水는 그上流인河南濟水으로부터다스리고 淮水는 河南桐柏山江水는四山茂州로부터疏通시키는同時北方의물은 全部 河水(黃河)와濟水로못도록맨들고南方의물은 全部江水(揚子江)와淮水에못도록 맨들엇다 이와가치治水하는反面 道路를開拓하고 農地를灌漑케하야 中國文化의基礎를닷갓다 그러나中國의科學的史家들은 勿論 夏時國史를 堯舜時代는 眞正한中代도 버리고殷으로부터 시작한다 왜그런고하면 殷時代의文化는龜甲文字等으로因해 多少엿볼수잇지만 그以前의史實은 齊東野人의傳說外 아모것도업는外닭이다 萬一그러타면이뼈엣나의敍述한禹의治水經路또다事實인지아닌지 어찌할수잇는가? 夏란種族이治水로因해漢種族을統治한것만은 틀님업는事實이지만 禹라는이야果然實在人物인지아닌지 어찌할쓰잇는가? 勿論 文籍으로傳하는禹의事蹟은 太半信憑할수업는 이약이다 그것은여러분에게 紹介하고자하지안는다

慘澹又하야 가장急困하얏섯나니 水氣가 暑炎과아울려 비고안진 그中에는 奸黨暴處 [illegible] 한데다가 飢乏中 飮食의失節함이 더욱이 疾病을醸成하는外닭이다 水災民收容인수록 房舍가 터어야하겟고 우선水沈하얏던 衣服을바꾸어야 당장에 [illegible] 免하는것이다 客車內로 몰어가 그네들 [illegible] 느져지는 [illegible] 氣에 거름이 밧부어지는데 명이밥 떠닭나고 四方에서 떠드는모양어가지고 깃부게甘食하는모야 이모양이 지금엇이치지지안니한다

乙丑年水害의片憶

鄭寅普

二村洞의 漂沒 뒤쉽 往十里의半沈으로 서울一帶가 洶洶하든 乙丑年過境이 지금各紙의連報되는 慶南北水災記事에어울려 歷歷히 눈압에보이는것갓다 그때나는時代日報라는新聞을關係하얏다 二村洞漂沒하든때 漢江鳳翥亭에서 간신이몸만나온男女老幼의 여긔저긔모이여서 刻刻이느는濁浪을바라보고잇는 景狀을보고社屋으로도라오니外 뒤섞갓든救護班一行이 바장노백이한옷옷을버스며『물이房外지드리와도數間草屋을차마 떼치고나오지못하야 긔의죽을번한 사람이만앗다』며 눈물겨운 이야기를한다 이말을듯고나니 鳳翥亭에 모여안진 男女老幼의정신업시 故居의濁浪을바라다보는 그心懷 새로이가슴을쥐르는것갓햇다 붓드럿자 떠나가고말 그집이엇만 차마못바리는것이다 바라봣자 濁浪뿐인그어름(際)이엇만 그래도 차마못잇는것이다

○

그때 鳳翥亭以外로는 京城龍山두驛사이에 客車몃輛을收容所로허더 罹災民一部를 頓歇케하얏섯다 鳳翥亭은江岸이라 耳目이 모다 그리로모이게되얏슴으로 社旗를씃고 飮食을나누어주엇스나 鐵道가阻斷된그때는 京城、龍山두驛사이가實로絕峽속이다 救護者의心理 반드시커알리기爲함이아니로되 不知不識間이으슥한데는종等閑하게되야午前에생긴水亂인데 下午九時頃에야 비로소麵包、湯飯等을分饋하얏다 이일을미루어 우리의大節小行이 남의耳目만塗抹하라는데서壞敗됨이만흠을 생각할수잇스며 그때時代日報는 極度의艱窘中에잇서 救護事業을할수업섯는데 한참비퍼붓는데 지금中央專務尹希重君과가티 昌成洞李喜鏞氏를 차저가서 그의援助를바더 鳳翥亭一隊의搬出 客車中一隊의搬運 車撥의 救濟行動을始作하게되얏다 李氏는 이제엿 그때이야기를하며 퍽愉快하야한다 이일을 미루어 救濟에對한義擧는 일지난뒤 自心의愉快를培殖하는것임을 생각할것이다

○

鳳翥亭서나 客車에서나 頓歇하든이들은 배곱흔것보담도

一九二九年 咸南水災

李源赫

아마 朝鮮에서 近年에이러난水災中 가장慘憺한것은 一九二九年의咸南水災일것입니다 나는 그때新幹會를代表하야罹災地踏査外지하엿습니다만 지금생각해도 그慘憺한狀態는참 뭇지하엿습니다 咸興으로부터新興邑外지의距離가百餘里나되는것만 城川江沿岸一帶의廣漠한平野가 全部埋沒되엿고 新興邑에서 머지아는 上元川面과下元川面의 土地와家屋은全部가휩슬려버렷슴니다 死傷者만 六十餘名을내엿섯고 財産은全滅당하엿섯습니다 山일홈은지금이젓습니다만 그山의北에는甲山 西에는新興 南에는洪原인데 이山을中心으로하고 그東西로分離하야南流하는南大川江은山麓附近一帶의數十餘村을 全滅狀態에바트리고北靑 茂山等地에도 損害가 莫大하엿습니다 내가아는同志한분은 某事件關係로在獄中이水災가닭에 父母兄弟妻子家屋田畓을것업시 全部烏有에도라가고마럿다는事實이잇슴니다 이러한慘境을全部合하야 생각하면 이번嶺南水災도 얼마나慘憺한것을알것입니다

乙丑年水害調査表

道別	人 死	人 傷	人 行衛不明	家屋 流失	家屋 床上浸水	家屋 床下浸水	被害 全潰	被害 半潰	累計
京畿	三三	一三	一〇一	四、四三三	一八、五二四	六三、三六六	三、五五一	三、七七三	三六、八二七
忠北	六	一	、	一九九	一、二四三	一、七九九	三〇五	三三三	三、七七八
忠南	二〇	一七	一〇	四六	一、九九九	三、一四	三九一	三〇	五、八九四
全北	一〇	一	、	二	三、一九	五、三二八	三四六	四七	九、三六一
全南	四	三	、	五	一四四	、	五	一四	一六八
慶北	四七	一三	四	一、五四三	一、九五	三、八二一	一、〇〇四	六二四	七、五五九
慶南	一三	一三	三	五三〇	一〇、〇八〇	五、四三七	四、四三〇	一、五九九	三一、〇六八
黃海	五	八	、	二	一、二二七	一、九八七	九七	二五	三、三一四
平南	、	、	、	、	四四	七六	、	六	、
江原	二五	、	、	一	一、八二三	一、六二三	九九	一五三	五三、一六五
咸南	、	、	、	、	、	、	、	、	、
咸北	、	、	、	、	、	、	、	、	、
合計	三九七	三六四	二三九	六、六〇三	四六、八八四	一〇三、五一五	一、七〇四	六、六六〇	九七、九五五

備考 平北及咸北被害無함

五萬年前의 世界的大汎濫

洪洋漢

洪水亂 洪水亂해도 洪水의 가장大王노릇할만한것은 아마 五萬年前에 全世界를埋沒할듯한大洪水일것이다 이大洪水가 西歐에서 英國을大陸으로부터 分離시키고 北에서北海를맨들고 南에서地中海를맨드러내엿스며 東洋에서 滿洲와亞細亞大陸을分離시키고 山東省과朝鮮半島사이에 渤海와黃海를맨들고 米洲를南北으로區別식힌것이다 그外닭에우리는 洪水汎濫中에서 五萬年間이나살고잇섯스며 이洪水만은 到底히退治하지못할 人類의 運命이라고도 할만한것이다 그것은 第四氷河期의 大事變이엿섯다 眞正히 五萬年前인지 或三萬年前인지 六萬年前인지 或 五萬年以上이나넘는지 學者의計算이不一하다 그年數보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大事變이 잇섯다는 證據가貴重하니 여긔對하야는 記錄을槪括하면 두가지라한다 하나는 神話로만보아서는 안된다 그根據가地質學的으로는 分明히잇스니 汎濫前의 地中海는東西두군데에 난호어잇는 湖水엿섯는데 그東便것은 埃及의流하든 아드리아河(지금은바다)紅海河(그때는江)中央亞細亞에잇는大海로부터흘러나오든河水가合하야되는것이엿고 이東便湖水가西流하야西便湖水를맨들게되엿섯다 이두湖水의沿岸에는新石器時代의人類가 定住하면서 或은狩獵도하고 或은農事도經營하엿슬것이다 地質學者『라이쓰』氏의말에依하면 地中海는 大西洋이맨드러주엇다하니 北歐에싸여잇든『氷層』이별안간에溶解되여서 北海를맨들고 英國을大陸으로부터分離식힐때 西班牙와 阿弗利加사이의지브랄타峽谷으로 大西洋의물이 넘처드러오기시작하여서 처음에는조금식 土壤을부서트리면서드러왓슬것이요 나종에는 大洪水가밀려드러와東西兩湖가合하여지며 그沿岸의住民은 全滅을당하엿슬것이다 나날마다 물이느러가며 沿岸住民을包圍하고 漸漸더膨脹하야가며 河水沿岸을碧海化하고 山들을덥고 나무끗대이外지올라가지무릅녀의光景은 舊約에記錄된『노아』의洪水이야기가 如實히그러한것이다 그러고 이러한光景이 歐洲에서뿐아니라 米洲와東亞大陸에서도 거진同時에演出되엿슬것이니 世界諸民族의有史前洪水이야기는大槪이러한것이 그根據일것이다

水亂에對한史話 (一)

文一平

◇

天災와地利를 아울러가진朝鮮에도 天災와地變이 아주업는것이 아니다

朝鮮에서 天災라하면 흔히 水旱을 가르처 하게되나니 그는 다른것이아니라 이 두天災가 가장頻繁하고 또가장 慘酷함으로써다

◇

그러나 水旱이 慘酷하다하여도 災變이 적은 朝鮮서 比較的 그럿탄말이지 이것을 地震과 海嘯의 만흔日本에 견주도록 그慘酷의程度가 본대부터朝鮮은 되지안는다

古今을 通하야 朝鮮이 農業國이니만치 水旱이 언제든지 直接으로 年事에 影響을미치어 이 水旱不調가 바로王朝革命의 一因外지 지엇다하거니와 水旱兩災중에 어느것이 더可恐할것이냐하면 朝鮮서는 水災보다도 旱災이다 旱災가 잇는해는 凶年이 드나 水災가 잇는해는 도리어 豊年이 드는것을 보아도 알것이다

◇

그러치만 水災도 決코 그慘禍가 가부여운것은 아니다 한번 水災가 잇슬때는 만흔生命과財産을 一擧에 漂沒하거 犧牲하야버리는것은 이번慶南水災그것이 잘 證明하는바로 正史를 涉獵하야보면 三國初로부터 末外지 一千八百五十年동안에 約一百七十餘번이 잇섯다 그중에서 가장큰洪水를 들자면 新羅第二十七代眞平王十一年七月에 國西大水이니 漂沒한것이 三萬三百六十戶에 達하엿지마는 그人命의損失은 僥幸히 겨우 二百餘人에 지내지못하엿다

◇

麗朝에 와서는 洪水에對한 記錄이 더욱豪散하야알수업스나 第十代靖宗五年六月에 大雨에 鴨綠江水가 넘처서 高麗兵舍七十餘間을 漂失하엿다 그리고 第十九代明宗十八年七月에 鴨江界에 大雨가 내려서 禾稼를 損傷하엿다 이 두文字는 高麗國防의 重鎭인 西北兩界의 水災를 말한것으로 하나는 兵舍에게 對하야 鴨綠江을 界으로하고 하나는女眞에게對하야 鴨東海(永興灣)를 界로하엿는데 鴨綠江에잇든 七十餘間의 兵舍가 떠나갓슴은 어지간이 大洪水이엇던 모양이다 그러나 鴨江界에 黃虫과黃風가비를 따라내려 穀物을 損傷하엿다함은 참말 奇怪한災變이다

歐米洪水亂記

◇……그의史的槪觀

李永友

洪水 하고 東西洋을勿論하고 古今을通하야 人類에게 災難을주는 가장普遍的인 一般的事實의하나이다

夏節에잇서 그리하야 每年 洪永의基因으로 土地와人畜에對한損害가 不少한數字로서 現出하며 이와는正反對로 써로는 災禍를 내이는一方增水되여든沿岸을肥沃에하는 些少한稗益이되는例도잇는것이다 例를들면 埃及의『나일』江의洪水는 每年霖雨로서 增水되는것은 一般의旣知의事實인데 이上流인『아비씨니아』는 每年四月부터 雨期에들어 六月末에는 河水가 甚히 暴漲하야 十月에至하야서는 그極에達하고 十一月부터야 漸次減水되여 汎濫하엿든 兩岸에 肥沃한黑土를 남김이恒常어어서 이下流는 古來로土地豐饒한것으로 有名한것이다

何如튼 洪水의災害에關하야는 詳細히論할것업시 表題에依하야 紀元後十八世紀外지의 가장有名하엿든 歐米의洪水事件에對하야 無味乾燥하나마年代順으로 列擧하고 極히簡略히 說明하려고한다

起源 歐羅巴의洪水史는 『노아』洪水에서 그起源을發할것이나 그것은 벌서神話化한것이고 其後西紀前後에도 輕視치못할洪水가잇스나 다만史上에 確實한記錄이업고 一二四五年에 英國『린콜』에 海水가 侵入하야 數千町步의土地가 荒廢로化한일이 잇스며 一二六八年에 『벨샤』灣에도 亦是海水의侵入으로 多數한市邑이 그害를蒙하엿다 그리고 一〇一四年에는 英國海岸의 各都市가 浸水되엿스며 其後八十餘年을 經하여 一一〇〇年에는『켄트』의 海岸이 海水로二千餘町步가 荒地로變하엿고 一一〇八年에는 和蘭의『플란더ー스』에 海水의侵入으로市街가 無慘히破壞되엿고 其後一一六一年에는 伊太利의『시실리아』에 亦是海水侵入으로 溺死者가數千人이나되엿스며 一一七〇年에는 또和蘭에大洪水가잇섯다

이럿케 當時에는 海溢도 말미암아 歷歷히其害를바덧든데 一二一九年에는 諸威에서湖水의決潰로 溺死者가三萬六千에達하엿고 一二二八年는『플리ー스랜드』에海水의侵入으로五十萬에갓가운 溺死者가생기어海水侵入으로因한 人畜死傷의最大記錄을作成하엿고 一二八六年부터一二八七年에 亘하야는和蘭『쥬이더ー●쎄ー』의 兩岸에暴風雨가甚하여

河水 는 汎濫된일이잇섯는데 百年을隔한 一三九六年에는『랙셸』其他의大小島嶼가本土에서 分離되여버리엇다

다음 一四二一年에는 和蘭七十二個村落이 浸水가되고死者가十萬人이나되엿스며 一四八三年에는 西英國『쎄버ー』江이 汎濫하기를 十日間이나繼續되여 水量이丘陵의頂上에外지達하야그被害는 形容할수 조차업섯고 一五一二年에는 和蘭에서는前史에比類업는 大洪水가나서 十萬人이나 溺死하엿는대 一五三〇年에니르러도 勿驚四十萬人의 生靈이犧牲되고 말엇고 一五六八年에는 佛蘭西『솜』江은上流의 多量의積雪이 春暖에融解되든途中降雨가 甚하여 急據히流水量이 增加되여서洪水를惹起하엿스며和蘭에는 다시一五七〇年에海上의暴風雨로 村落多數가被害되고『프리ー스랜드』에서는 溺死者가二萬이나생기엇다

其後一六一七年에는 西班牙『카탈로니아』에서一萬五千人 一六四六年에는 和蘭及『프리ー스랜드』에서 無慮十一萬人이 洪水로因하야 溺死하엿고 一六八六年에는英國『요ー크』에洪水가나서 水深이寺院의집웅을 沒하엿고 一七二六年에는 歐羅巴全土에亘하야 水害를當하엿스며 一七六七年에는英國東海岸이 海水로 洗水되엿다

그리고 一七七一年에는英國『요ー크』州에世稱『리폰』洪水라고하는大洪水가잇섯스며『큐바』에는

連日 의豪雨結果水量이激增되여三千人이 溺死者를내엿고 一八一一年에는 匈牙利의『따뉴』江이氾濫하여二十四個村落이流失되고말엇고 一八一三年에는 墺智利、匈牙利、波蘭、普魯西에 各各洪水의 災에 被襲되여 波蘭에는四千의 溺死者가생기엇고『실리시아』에서는 六百人이 生命을일어버리엇다

七月九日(日曜) (波長四九二米) 今日프로그람發表

◇正午 時報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〇時五〇分 회머리
一、男唱지름 林春子 韓花仙 梁錦花 禹珊瑚珠
二、회머리
◇同一時二〇分 (A)現代音樂 鳥瞰 五) 소벳트音樂
一、抒情的小協奏曲……미아스코푸스키ー作曲
二、小組曲……크닙페르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렛토
第二樂章 안단테•모노토ー노
第三樂章 알레그로•죠코ー즈
가、난다테 나、아다ー지오 다、알레그로모데라ー토 라、모데라ー토
解說 中根宏 指揮 山田耕作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二時 野球試合實況 全國都市對抗野球朝鮮豫選決勝戰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 金仙草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沈宜麟 界常한그림
行善의動機 延專文科科長 白樂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俗謠 朴月庭 金順紅
一、압산打鈴 二、뒷산打鈴 三、京사거리 四、박아打鈴 五、자진방아打鈴 六、난봉가 七、사설난봉가
◇同八時 流行歌
一、空閨恐 李月波作曲 二、其時節 同 三、不夜城 同 四、긴한숨 徐永德作曲 五、停車場 李月波作曲 六、그녯날 徐永德作曲 七、님이여아는가 同 金仙草
◇同八時三〇分 唱劇 春香傳中 피아노伴奏 徐永德
春香愛科擧에서 李香진찾는데外지 朱蘭香 李小香 金世俊 吳太石 金光彩
◇同九時三〇分 (A) 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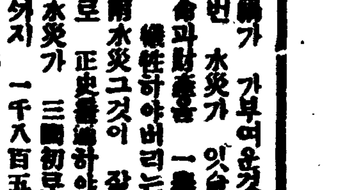
◇第一放送順序◇ 七月九日(月曜) (波長三三三米)

▲午後〇時五〇分 滿洲より▲同一時二〇分(A)現代音樂の鳥瞰 ソウエイト音樂▲同四時三〇分大日本大角力實況 —第二日— 本町一丁目角力場より中繼—▲同六時唱歌一齊唱▲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ヤユビングの話 笠谷保太郎▲放送文藝當選作品發表▲同七時三〇分(A)物語 鼠と童女▲同八時(B)浪花節 ▲同八時四〇分(A) ラヂオドラマ

修養講座 午後二時

行善의動機 白樂濬
一、緖言 動機의定義와解釋
二、動機의種類와批判
甲、利己動機와및그缺陷
乙、利他的動機와및그缺陷
丙、基督이致示한宗敎的動機
三、結言

今日벽창호休載



人形의집을나와서 【41】

(「노라의後日譚」)

蔡萬植 作 吉鎭燮 畫

적막한봄 (5)

노ー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앗다

참아 입이열니지 아니하엿다 노ー라는 다시 입을 다물엇다 차라리 서울가서 편지로하리라고 또한번 미루엇든것이다

복동이를 식혀 병택이집에 보내어 혹 어데가 잇다는소식이나 업는가 알어오라고하엿다

자미업는 일인줄아나 아쉬운대로 그의 거취라도 알고십헛든것이다

그러나 복동이는 아모소식도 가지고오지못하엿다 집안에도 역시 한번나간뒤에는 엽서한장도 업다는것이다

어데서든지 한번만 더 맛낫스면 어쩌면 사람이 그러케 무심하냐고 원망이 하여주고십헛다

어머니는 불이야 불이야 떡쌀을 당그고 무얼 작만하라고 서두는것을 노ー라는 구지여 만류하엿다

혜경이에게 세시반이나 하여서 어데노아닷나는 편지를 붓치엇다

사흘되는아침에 옥순이가 범든범을 우스면서 놀나왓다

구경삼어 서울을 가겟다고하니 처음은 완고하게 반대를하더니 친정부모와 오라버니들이 하도 졸나니 하는수업시 승낙을하고 돈 저밤에 겨우 좀 주겟다고 한다고 어린아이가티 조아한다

노ー라는 혜경이에게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치고 행장을수습하엿다

짐을 참기다보니 병택이가 가저다준채로 내던젓든 부인론이 눈에띄인다

고히 가방속에 간수하여두엇다

옥순이는 부러운듯이 염혜서 노ー라의 가지수만흔옷들을 구경하엿다 노ー라는 그 눈치를채이고 자긔의 옷한벌과 신든 구두한커레를 따로 내어노앗다

차는 밤차이엇스나 밤길에 정거장外지 나가기가 멋하다하여서 해전에 떠나정거장근처의 아는사람집에가서 기다리기로하엿다

짐을 복동이와 옥순이집머슴에게 나누어 지이고 두집

어머니서지 일행네사람은 집을나섯다

노ー라의 옷입고 신녀성으로채린 옥순이는 처음신은 구두요 처음입은 옷이라 좀 어색한것가트나 다행이 잡마저서 과히 어색하지는 아나하엿다

그러나 정거장外지 가는동안에 노ー라도 그렛거니와 옥순이는 발이압퍼서 매우고생을하엿다

정거장에서 차가 떠날때에 노ー라어머니는 울엇다 노ー라도 울엇다

울면서 어머니는

『부듸 이담 올때는 어린것들 데리고오느라』

하고 부탁하엿다

『념녀마세요 내년쯤 이라도 어머니 모시러갈게』

하고 노ー라는 위로를하엿다

이리에서 갈어타면 밤차는 바로 경성역에 내려준다

차는 어둠을뚤코 연해달음질을친다

옥순이는 한곳에 의지삼든친정을 떠나는것이 적막하엿스나 보고십든 서울을가는것이깃벗다

그러나 노ー라는 한걸음두걸음 닥처오는 서울이 반갑지 아니한것이 아니나 장차서울바닥에 떠러저가지고 압흐로 시닥며나갈일이 아득하게 머리속에서 뒤끌엇다

어두운속에서 요란하게 투닥거리는 바갓과는 딴세상가치 언제나 맛보든 차안의한가한 공기에 쌀니어 피로하엿든몸이 서로기대고 잠이슬못이들엇다

이튼날아침

언제왓는지십게 두녀자는오백리를 떨어진 경성역 푸랫트폼에 내리엇다

혜경이가 달녀왓다

그는 노ー라를 덥석 안고 한동안 말을 못하엿다

『잘잇섯수?』

『응 잘잇섯수?』

또한동안 말이업시 마조바라보앗다

『저이는 누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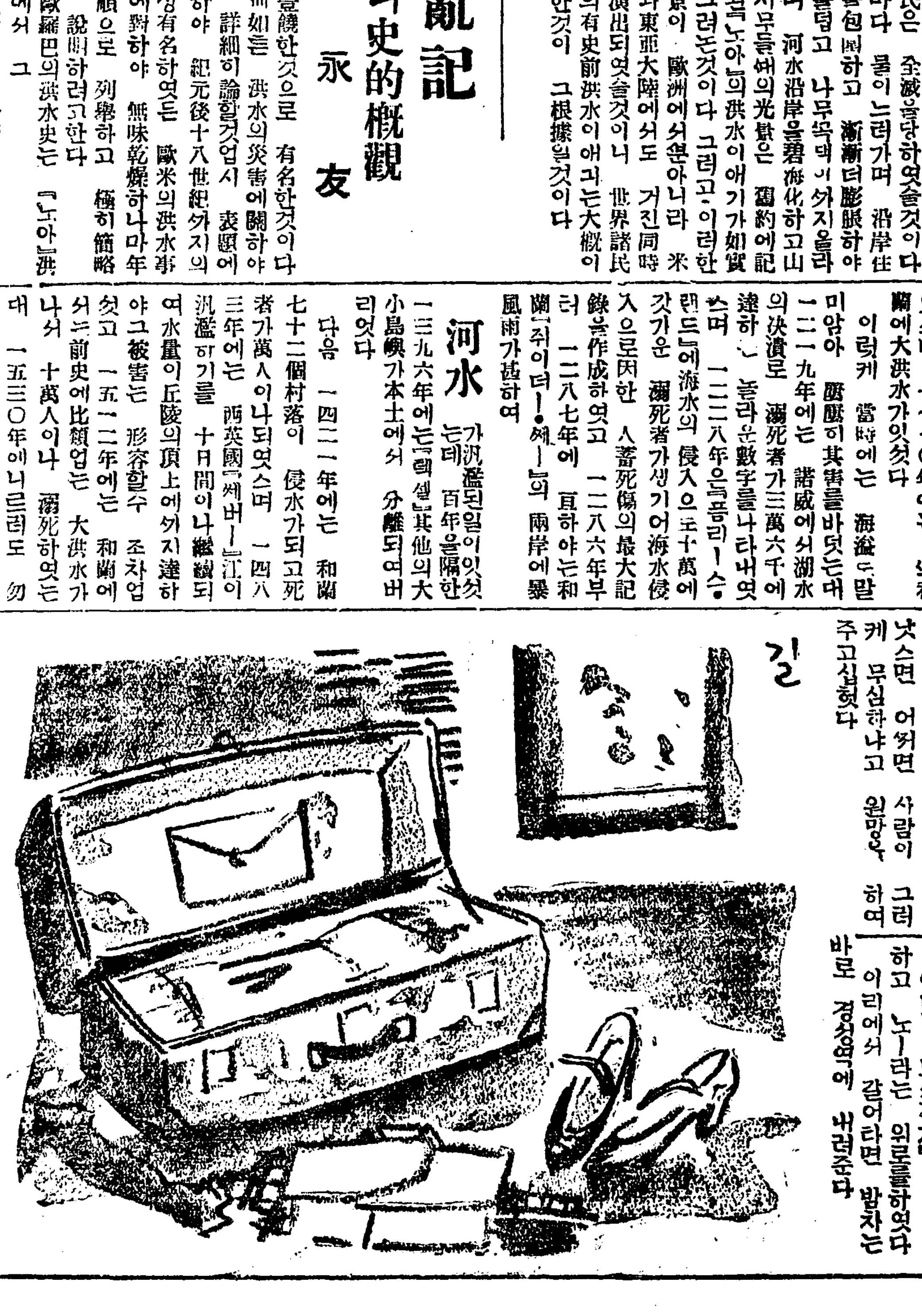
노ー라는 비로소 혜경이에게 옥순이를 소개하엿다

『어서 박그로 나갑시다ー』

하고 혜경이는 압흘섯다

『그리고 마침 조흔소식도들려줄게잇서……』

노ー라는 귀가 반짝띄엇다



南北에서勃興하는 南道水災救濟熱、

四團體聯合 救濟會創立 元山有志들의活動

【元山】지난칠일하오오시반부터원산기독교청년회관안에서 원산로동련합회(元山勞働聯合會)동아(東亞)중앙(中央)조선(朝鮮)삼지국외 사개단체(四個團體)와일반유지들까지 집합하야령남수재민원산구제회창립대회(嶺南水災民元山救濟會創立大會)를 강긔덕(康基德)씨사회로개최하고 림시집행부를 김하선(金河善)김상익(金相翊)강긔덕(康基德)삼씨를 선거한후 순서를따러 원만히 진행하엿는데 위원회는 구일오전십시부터 개회하기로 결정하고 오후구시에 산회하엿는데 금번에활약할 임원들은 아래와갓다 (無順)

◇委員 張基郁 趙基周 韓致恒 康基德 安敦毅 韓永圭 張翼杉 康奎鎬 金相翊 金河善 崔光濟 李錫保 朴容大 朴世吉 魏根鎬 金景俊 金希俊 金鼎俊 金錫鉉 金用斌外七人

◇檢査委員 康福順 李濟燮 韓祜錫以上

炎天을무릅쓰고 博川基靑活動 五十餘圓을募集

【博川】지난오월말경부터 박천기독면려청년회주최로조선、중앙、동아 각지국후원하에 염천(炎天)을무릅쓰고 임원들은 동정의눈물을흘리면서 구제의 긔ㅅ발을들고、동분서주하야 각관청과지방유지에게 동정을구한바 금액과씨명은다음과갓다

▲金五圓 博川郡守 ▲金三圓式 博川公普 博川水利組合 ▲金二圓 金義文 ▲金一圓五十錢 松村大進 ▲金一圓式 兪元男 劉鍾翼 朝鮮日報博川支局 金長順 佐野秋男 同元興商店 澤崎次郎 金禮容 ⊙運送店 金翼成 (大)大昌運輸部 東亞日報博川支局 ㊉荷主運輸組 吳龍石 荒川九郎次 韓士賢 金寧基 安井立兵衛 宋光濂 孟北貨物自動車合資會社 趙苑雲 ▲金五十錢式 日高由俊 欄重顯 立成禹 趙箕錫 劉顯旭 李斗燦 天日精米所 李靜洙 坂本幹平 李在善 白虎一林商店 金堅五 錦生儀 李泰一 金鳳梧 服部重太郎 柳鼎和 金岐宇 吳永洙 丁和淳 韓膺涉 ▲金七潤·趙基韶 ▲金三十錢式 金容星 洪淳繩 折笠祿 長谷梅吉 劉基炯 金天暻 日光堂 李芝福 柳東十 燕得胄 成贊泰 朴明주 黃祥 崔應道 朴錫炯 韓正柱 成歡練 吳箕範 ▲金二十錢式 金鼎燁 洪利斗 金寶鏡 吉龍勝 李秀明 申東植 田萬植 柳允實 康處禹 安處和 金金明 魚仁化 金泰元 金尙柱 ▲金十錢式 趙璣奎 李保赫 金燦珍 以上合計金五十六圓五十錢也

安岳記者團 同情募集着手

【安岳】금번남조선일대의미증유의 수재비보(水災悲報)를 접한안악기자단에서는지난이일 예령시총회를본보지국에서열고 불의에참변을당한리재민들의구제책을강구한후 곳 남조선리재민동정모집사무소(南朝鮮罹災民同情募集事務所)를 본보지국에다정하고 일반사회제씨들에게 동정을구한다는바 제씨들은 금전이나의복이나식료등을 다소를불구하고성의대로드러가 운동청을기우려주기를바란다고한다

兩自動車停留所 賃金割引紛爭 解決期杳然

【利川】경긔도리천읍에잇는 리장자동차부(利長自動車部)와 리천자동차부 정류소(利川自動車部停留所)사이에임금할인(賃金割引)문제로 지난륙월삼십일에 리장 자동차부조수인 리장원이 와리천자동차부정류소 주인한 우석과 싸우고쌍방에서 고소를 제기하엿슴으로 리천 경찰서에서는 그사실의내용을 조사중인바 일반은사건의진개를 주시중이라한다

在留神戶同胞 慰安大運動會 盛況裡에終幕

【神戶】재신호(在神戶)동포 유지의성원과 울산상조회(蔚山相助會)주최로 본보신호지국후원아래 재류동포 위안운동회를 개최한다함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만반준비가 다되여 예정과가티 칠월일일 신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바 정각인오전구시류량한 주악으로 천여명 선수의 장엄한입장식이 시작되여 주최측부회장인 윤천마(尹千馬)씨의 일장훈시가 끗난후 진행순서에따라 경긔가 시작되엿다 재류동포로서는 처음되는 대운동회이 만큼 정사진부터 물려오는관객은 무려수천명의 대성황을 이루엇스며 각치가단체의 열성한동원의노력는 구름한점업는 말근하날에 해항(海港)신호한복판을 우렁차게울리엇다 녀성경긔와 래빈경주를것드려최후경긔 사천메-돌 결승을맛으로 삼십여종목을 무사이맛치고 오후륙시에 수상식이잇슨후폐회 하엿는데 중요경주의 우승자씨명은 아래와 갓다

▲四千「메-돌」一着 朱哲岩 同二着 金朱時 同三着 朴渭洙

▲二千「메-돌」優勝 李白珠 同 朱哲岩

昌寧水害 溺死者二名 륙백호침수

【昌寧】경남창녕군(昌寧郡)은 륙월이십팔일부터 내린비는 십여년래로 드문대홍수를 일우엇는데 자세한피해는 방금조사중이나 대략판명된 수해두게는 아래와갓다

△死亡二名 負傷三名

△家屋倒潰流失浸水六七二戶

△田畓浸水流失一萬町步

△堤防決潰一五個所

△道路決潰九個所

平壤木下皮革 盟罷原因은賃金 오할을감하한새닭에

【平壤】기보=평양부외률리(栗里)목하삼랑(木下三郎)이경영하는피혁공장(皮革工場)직공사십칠명의 동맹파업은 쌍방이대립된채로 형세가 험악한중에 잇는데 공장측에서 우피(牛皮)한장에대하여 오전식하든 임금(賃金)을내리고(減俸)나 경고(警告)도업시 돌연히 오할을감하엿슴으로 삼일아츰부터 맹파를단행한것으로 경찰측에서는 사태가 용이치안타하여 공장과공장부근을경계중에잇다

…는상무리사 조동순(趙東淳)씨의 개인의사요 조합과는하등관계가 업는이상 당당히배상하여야 한다고 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 교섭하엿스나 상무리사 조동순은 합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평양검사국에 동시건을 정식으로 제소하게 되여 문제는날이갈스록 복잡하여지고 해결의서광이 보이지아니하더니 동연맹원에 권리조동순을 평양검사국에서 소환취조하다가 횡령죄로 신체를구속할수밧게업다하야 일시 검사의 령장으로 구속을 집행하엿는데 전기 조동순은 명예와지위를 위하여인지 구속당함을 두려워한인지 당일검사에게 꼿나가서변제하게다하야당일검사로부터 정한 기한부하야 석방하엿다는데 자차사건의 귀결이 여하히될는지일반의주목이 매우크다한다

[illegible] 평양측을 숙지하는 조선인의 사를 서임하야 지방사정에 정통하다하여 [illegible] 의 인물을 보아 [illegible] 우의수기라 농작물피해는 아즉조사하기불능하다고한다

兩엡靑主催의 夏期大講演會 ◇…疲弊한朝鮮農村 說弊救弊의滔滔萬言

【鎭南浦】진남포비석、신흥(鎭南浦碑石、新興)두엡웟청년회와 농업과원에서는 지방순회중인 평양숭실전문 학교강사두분을 마지하여 지난륙일오후여들시반부터 본보진남포 지국후원으로 비석리감리교 례배당에서 하기대강연회를 개최하엿는데 모혀드는군중은 정각도되기전에 대만원을일우엇다 정각에 리경선(李慶善)씨사회하에 숭전 농과과장리훈구(李勳求)박사는「朝鮮農村은更生할수잇는가」라는문제로 동교문과 과장채필근(蔡弼近)씨는「宗敎에 대한一考察」문제로 의미심장한강담이잇고 동열한시에폐회하엿는데 청중이 오백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일우엇다한다

普通江改修 具體的計劃內容 其實現性如何를注目

【平壤】이백사십만원안에의한보통강개수공사는신하(新河)를서평양역 상부에서장대(兩車台)의고지를 횡단하여 일직선으로대동강에 접합하게 하고다시대동강구에서 보통강신하와 약이백 오십미돌(米突) 거리로 병행(並行)하는 약삼천미돌(米突) 되는 운하(運河)를 뚤코 권귀운하는 현재의보통강을 개수하여보통문 옷편까지 선박의출립을자유케 하라는것이다 운하의아래편 대동강구에는 이중압문(二重閘門)을 설치하여 간조(干潮)될때에는수심(水深)이미돌(二米突)을보존케하여 적은배가 자유로 출입케하는것이다 또한 운하의 웃편 보통강신하와의 분기점(分岐點)에도압문을설치하여 운하내에 부족이될때에는 보통강물을 쇠를어너허 수심을 보존케하게된것이라는데 권귀운하의 공사비는 칠십만원을요하고 방수공사는 평양측에 방수제방(防水堤防)은 신보통강과 운하의 중앙에 설치하고 신강대안과 분기점부근 평양하박평장에서 압문에넣으는선에도 시공할것으로 동공사만도공비는백칠십만원의거액에달한다고한다 하여튼 동공사는 다분의실현성이잇는터임으로 금후경과는 크게주목되는바잇다한다

處女投身自殺

【禮山】충남례산군봉산면효교리(忠南禮山郡鳳山面孝橋里)인재영(印在英)의장녀(長女)(一七)는 지난삼일에 세천처녀는 동리우에가서 치마를 얼굴에다쓰고 참이 투신자살하엿다는데 그 살바원인은 자긔친모의 학대가 자심하야 세상을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한다

死傷者만廿六名 農作物被害六十萬圓 道路復舊費廿三萬圓 全北道內水害總覽

【全州】금번홍수로전북도내의 피해도의외로 큰바도당국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사상자(死傷者)가이십륙명 농작물피해가 륙십만원 도로복구비(道路復舊費)가이십삼만원으로 도당국에서는 복구대책에대하야 방금협의중으로 그내용은 여좌하다한다

一、人畜被害
死亡 男六名 女六名 計十二名 (全州三 南原三 井邑二 茁浦一 金堤一 裡里一)
行方不明 一名(全州)
負傷者 男九名 女四名 計十三名 (全州二 錦山五 茁浦六)
合計男十六名 女十名 計二十六名

二、家屋被害
罹災戶數 三、二〇六戶
流失 二〇棟
全潰 一〇九棟
半潰 三一二棟
床上下浸水 二、七八七棟

三、救護人員 男二、四四一 女一、〇七六

四、交通被害
道路流失 二一二個所
道路決潰 四八八個所
道路浸水 二八三個所
計 九八三個所
橋梁流失 一一四個所
橋梁決潰、侵水 二九九個所
計 四一三個所

五、田畑被害
田畑流失 七五四、六二九町步
田畑埋沒 五〇、五三一、三町步
田畑浸水 四一、八六、三三町步
計 四二、九五、七九九町
農作物及果樹被害
合計 二、八九七、四〇五町
堤防被害
合計 一、四七〇個所
山林崩壞
合計 四〇個所

全州水害 警防團組織

【全州】전주지방에 폭우로 말미암아 일시 전시상태를이루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에 자극을밧은 전주서에서는 서장의발의로전주수해련합 경방단(全州水害聯合警防團)을전주서원 소방조원 유직원재향군인청년훈련생 긔타회사원등으로 조직하야 경방본부(警防本部)경계반(警戒班)방비반(防備班)구호반(救護班)등을두고만일의시에는 전주시민을 위하야각각자긔마튼일에 활동하리라한다

戶稅代納兩件

松井駒藏氏【禮山】충남례산군고덕면 대천리양조업(忠南禮山郡古德面大川里釀造業)송정구장(松井駒藏)씨는 원래자선심이 풍부한사람으로 고덕면각동리의 극빈자를위하야 수년을두고 호세칠십원 딸삼십원식을대납하여준 사실도잇고 작년에 남다른선공중에도 좁쌀사십가마사 가사백여원어치를 동면각리 극빈자에게 보냄한일도잇스며 또 작년에 동면구만리로부터 대천리통행 석곡교(石谷橋)가업서 장마가지면 고덕면 공립보통학교(古德面公立普通學校)생도가 통학하지못하는것을 보고 일반학생을 위하야 백여원을자담하야 다리를노아준일도 잇다한다 또동면극빈자의 금년제일긔호세 륙십원을 대납하여주엇다한다

安洪烈氏【大田】충북진천(鎭川)에사는 륙지가 안홍렬(安洪烈)씨는 대전동정(大田東町)이정목에사는 극빈자이십오인의호세를 대납하얏다고

金洛基氏特志

【芙江】충북청주군부용면부강리에사는김락긔(金洛基)씨는 오늘중 금춘에만흥공로가잇서서 오던동리가옥한채를 사가지고 물질의고통을바더 보통학교에 가지못하는무산 아동의문맹을 퇴치시키기위하야 모ー든 준비를와비한후 무산아동 삼백여명을모집하야 주학과야학으로나 누어매일 교수를하는중인데 교편을잡게된 사람은 당지리규영(李圭瑛)김칠권(金七權)양씨가 무보수로교수중이라한다

地方人事

▲黃觀河 金得珠 沈源河 康應楠 宋義根 盧成鄭 元李諧氏 安東縣朝鮮人會評議員當選人事次本報安東縣支局來訪

黃州殖産組合 失金事件擴大 常務理事까지拘禁取調 辨濟言明一時放免

【黃州】황주읍내에잇는식산조합(殖産組合)금궤속에 너허두엇든 오천원이나되는 거액이아무도몰으게 업서젓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미궁에 싸젓든 이사건에대하여 요지음다시문제가재발하여 황주사회인사의 이목을 집중하고잇다는데 그상세한것은 다음과갓다 황주식산조합금궤속에너허두…

寫眞…宜寧鼎岩의氾濫과鼎岩津의避難民

海平衝突事件 首謀七名送局 지난三日金泉으로

【善山】지난륙월십삼일선산군해평면 문량동(善山郡海平面文良洞)에서는농회지도원(農會指導員)십사명 농민 백여명이충돌되여 중경상자를 내인사건은발생 당시루보한바 어니와 소관선산서에서는 관계자 삼십이명을검거 인치하야 엄중취조하든바 대부분은 석방하고수모자칠인을 일건서류와가티 지난삼일김천검사국에송치하엿다는데송국된칠인은다음과갓다한다

◇送局者 全且祿 全圭鉉 全富元 全福祿 全小岩 全俊龍 黃甲述

彦陽面公醫 候補人選問題 萬餘面民이注目

【彦陽】경남 울산군언양면공의(公醫)를배치하기로되얏는바 이에대하야지방인사는 인물선임에 매우주목하고잇다 일반의희망과 여론을듯건대 언양면은본시 군(郡)의 소재지로써성내만하야도 팔백여호 일원아니라 접근한사면의 호수를합하면 만여호에 달한다 이래지방인사의요망과 당국의 행정상공의배치를듯기고 금년도예산에 편입하얏다는 소문을탐지한 유지들사이에는 암암중에 운동이맹렬하다는바 지방인사의 희망은산촌인만큼 만여호가 권부조선인만이사는곳이니우리들의…

移秧코도라오다 개천물에溺死

【長城】지난일일오후다섯시경에 전남장성군장성면 상오리(全南長城郡長城面上峴里)김두봉(金斗奉)의처김(金)(三五)씨는 그아내건너로 모내러갓다가 집으로도라오는길에 내에 싸져죽엇다는데 시체는 지금까지찻지못하엿든바 사십여리 이상되는 광주군림곡주재소(光州林谷駐在所)에서시체를 차저가라는통지가지낫산날에왓다고한다

十二歲小兒를 長時間結縛繫樹 떠러진살구를줍는다고 某金組理事의暴擧

【永同】지난이십구일충북영동에서는 학식과상식이 상당한 자로서 어린아이가 떠러진살구를 줍는다고 결박하야 나무에다동여매고 또그우에 동여맨것을 올너주엇다고 올너준아이를 추격하야 남의집내정까지 돌입하는등 가진만행을 연출한사실이잇다 내용은 영동군영동면부용리(永同郡永同面芙蓉里)에사는 최과부의장남 재득(在得)(一三)이가 여러아이들과 놀너나왓다가 본정동모금융조합리사모(某金融組合理事某)의집살구가 금번비에 만히떨어젓슴을보고 그것을주으려드러갓든바 이것을본 동리사는 곳달려와서재득을붓잡어 뒤ㅅ결박을한후 나무에다동여매엿섯다 이소식을 들은 재득의누이 금식(今植)(一四)이가 달려가서 자긔동생을 풀너노앗든바 그리사란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옴으로재득의 누이는 형세가위급하야모씨(某氏)의집으로 들어간즉 뒤를딸아들어가서 그집내정까지 들어옴으로 그집주인 모씨가 아모말도업시 남의내정을 돌입한것을 힐난하매 나는금융조합리사라는말만하고 하등의 잘못되엿다는 사과도업시 도라갓다는바 일반은그만행에분개한다고한다

長城郡橫領書記 奉天서逮捕押來 郡守財務主任도召喚

【長城】전남장성군 재무계(全南長城郡財務係)의일원이 정순학(鄭淳鶴)이는지난삼십일에 봉부장(鄭部長)외일명이 봉천(奉天)외지 출장하야 장성서로 압래하여다가 취조하는일방 군수와 재무주임등을 호출하여다가 사건내용을규명에 분망하다고 한다

宜寧의洪水亂 浸水家屋二百 人命死傷家畜被害不少 全郡水國化交通杜絕

【宜寧】경남의녕에는지난달 이십팔일부터나리든비가호우로 변하야이십구일오후구시경에이르러의녕시내에는일대소란을이러켜오든중각각으로폭주하는호우는삼일간이나계속하야 이십구일부터 사방으로 교통이두절되는동시 정암강(鼎岩江)물이 범람하여 중수이십삼척으로 의녕외는 수국화하는동시 연안에잇는 정암리일백삼십호는 광랑로도에 침몰케되야 폭주하는 호우를 그냥무릅쓰고 피란이팔백여명은일대혼잡을니러엇섯다

社會側에서 救護班組織活動 避難民救濟에努力

별항의녕에서도근고미증유의호우로말미암아의녕사가는복배로 수란을밧게되여 압흐로정암강물이 범람하여들고뒤로는의녕읍을포위하고흘러드는금천(錦川)의내물이 위긔일발에잇서서 시내시외와 정암강변에잇는 정암리(鼎岩里)일백삼십호가천수되여안명이 참담한데잇는때에 의녕각관공계에서도 구호 활동하가나섯스며 의녕사회 각면단체에서도긴급구호반을 조직하여 청년동맹(靑年同盟)회관과 본보의녕 지국두곳에다가 구호 활동본부를두고 의란지대에 활동하는동시녀성동지로는 구호취사(救護炊事)부를두어 호우가그칠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엿스며 정암리란민에게는선척(船隻)을사용하여 이일간식사를 계공하엿다한다 이십구일 호우에 의녕읍정은 수국화가된바 그긴 홍수의저주(咀呪)를밧고사망한사람이 다섯명이며 중경상자와 그외가축등을상실한것은 부지기수로 현재 발견된것은 정암리에서 계돈삼백삼십이수이고 다처에서 농우를상실한것이 세마리라하며 전…

平壤 全朝鮮少年蹴球大會

△日時 七月二十五、六의兩日間
△場所 崇專球場
△申請期日 七月二十日午後六時까지 (要參加金壹圓)
△申請場所 崇專大講堂事務室 朝鮮日報社平壤支局
◇主催 崇專學生基靑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本報支局主催後援事業

浦項 讀者慰安映畫大會
▲時日 七月十、十一日兩日 ▲場所 迎日座
◇主催 東亞、朝鮮、兩支局 ◇後援 各著名商店

濟州 全濟州軟式野球戰
▲時日 七月三十日午前八時 ▲場所 濟州邑光陽運動場
◇主催 朝鮮日報濟州支局 ◇後援 朝鮮、中央日報濟州支局

榮山浦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六日午前十時부터(但雨天이면順延) ▲場所 榮山浦穀物檢査所코ー트
◇主催 榮山浦庭球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榮山浦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原州支局 位置 原州郡邑內 支局長 李聖錫
忠州支局 位置 忠州郡邑內 支局長 梁允錫
朱乙支局 位置 鏡城郡朱乙溫面 支局長 李一南
利川支局 位置 利川郡邑內 支局長 張東潤
鏡城支局 位置 鏡城郡邑內 支局長 尹衡奎
靑陽支局 位置 靑陽郡邑內 支局長 鄭鍾殷

謹告

鏡城支局 總務兼記者 尹學標 右와如히新任함
忠州支局 總務兼記者 朴戴潘 記者 李一波 顧問 劉錫鉉 右와如히新任함
朱乙支局 總務兼記者 金昌元 右와如히新任함
原州支局 總務兼記者 鄭映憲 右와如히新任함
加平支局 記者 李雨相 右와如히新任함
南川支局 總務兼記者 吳[illegible] 記者 李[illegible] 右와如히新任함
鐵山支局 記者 朴時[illegible] 局長 沙溪朱 右와如히任함

史話 雲峴宮의봄 二의七

琴童 作 石泉 畵

홍선군 리하응(興宣君 李昰應)은 리씨조 이십일대 영종대왕의 현손(玄孫)이오 사도세자(思悼世子)의증손이엇다

영종의세손이시오 사도세자의 아드님인 정종이 등극을 하시고 그뒤순조를지나서 순종의 세손 헌종(憲宗)이등극하실 동안—홍선군의 집안으로보자면 홍선의 할아버지 은신군충헌공(恩信君忠獻公)의대에는 지존과의 동긔이든것이 홍선의 아버지 남연군충정공(南延君忠正公)으로부터 홍선에게 이를동안—궁중에서도 사도세자로부터 사대째 나려오고 홍선가에서는 사도세자로부터 삼대째 나려올동안—동긔가 삼촌이되고 삼촌이 사촌 오촌으로 버려저서 헌종과 홍선군과는 칠촌의 숙질로 버려질동안—궁을떠난 이집안은 령락되고 또령락되엿다

순조의 뒤를 이어서 여덟살에 등극하셧든 헌종이 기유(己酉)륙월 엿샛날 보수 스물셋으로후사가 업시승하를하셧다 아직장년이시기때문에따로히 세자도 책립치안코 헌종의 아버님인 익종도 소년하세하기때문에 세제(世弟)는업스셧스므로 종친ㅅ가운데서지존을 모서오지 안흐면안되게되엿다

만약홍선으로서 나히가좀더 어려서그때의 척신인김씨들에게좌우될만하든가 그러치안흐면몸가짐이라도 좀단정하엿드면헌종의 뒤를이어서 제이십오대의 보위에 올라갈자격이 넉넉하엿든것이엇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이령락된 공자를 돌보지 아니하엿다

헌종 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갑자기 승하 하시고 그 세자며 세제도 업섯기때문에 중신회의가 열리고 이 사직의 승계자를 지정할권리를 홀로 잡은 대왕대비(순조비 김씨)께 중신들이후사 지정을 간원할적에 대왕대비는 것가히 이서울에잇는 홍선을 지켜치 안코 강화(江華)에 나려가서 농사에 종사하고 잇는 철종(哲宗)을지적한 것이엇다 가튼 사도세자를 종조부로 하고 三대째나려온 홍선의 六촌동생이엇다

「영묘(英廟)의 혈맥은 승하하신 금상과 강화의 횡(瑝)원— 그를 모서다가 이 사직을 잇게 하오」

이것이 사랑하는 손주를 일코 망극하여 하는대왕대비가 하교엿다

이리하여 행운의 신은 술쩍 홍선의 집안을 거처 넘어가 버렷다

궁중 부중은 그때 김씨의 천지엇다 순조왕비도 김씨엇다 순조의 아드님으로 보위에 오르기전에 하세한 익종의비는조씨(趙氏)라 하나 익종의 아드님인 헌종비(憲宗妃)도 처음은승지 김조근(金祖根)의따님이엇다 강화도에서 모서온 철종도 김문근(金汶根)의 따님을 비로삼으셧다 이리하여 三대째 나려온 김씨의 세력은 궁중부중을무론하고 하늘을찌를듯하엿다 이런지라 필서 성년자이오 대처자(帶妻者)인 홍선은 절대로보위후계자의가운데 손곱힐자격조차업는사람이엇다

선상감은 자긔의七촌조카이며 현 상감은자긔의 六촌동생이로되 이령락된공자홍선은 척신김씨의 세력에 압도되여 마치상갓집개와가치 주린배를 움켜쥐고 투전판이며 술집을차저서 시정의무뢰한들과어깨를거루고 배회하는것이엇다 그러고 배배로술ㅅ갑시라도청몰리면 붓을잡고란초를그려서 그것을팔아달래고 각대관의집을지근지근차저다니는 것이엇다 마음이웃업시교한대관댁청지기며하인들에게 기진비우슴을 다밧지만 이공자는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여전히 폐의파립으로 그들의집을 차저다니며 구찬케구는것이엇다